

리아호나

**현실 생활을 유지함:
과학기술의 도전과 축복,
18, 22쪽**

학교에서 정직에 대한
진짜 시험을 치르다, 50쪽

어린이 여러분, 기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70쪽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샌디 프렉클레톤 가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옴이는 오르바와 롯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나옴이의 두 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좃았더라

나옴이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롯기 1:14~16)

롯은 나옴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롯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벧을 낳았으며,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롯기 2~4장 참조)



리아호나, 2010년 6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잿빛 날개 카나리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찬을 취하며 성약을 새롭게 하다



특집 기사

- 18 건설적인 인터넷 사용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터넷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영감에 찬 내용과 자료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다.
- 22 사물을 있는 그대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대적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책략 중 하나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 32 캄보디아 후기 성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
채드 이 퍼레스
암울한 시대를 거쳐 온 캄보디아에서도 후기 성도들의 삶에는 복음의 빛이 발합니다.

표지 사진, 데이비드 스토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0 우리의 믿음: 선택의지는 영원한 발전에서 필수적이다
- 12 복음 고전: 반석 위에 세워진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
- 15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익명
- 16 교회에서 봉사하며: 봉사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되다
케네스 존슨 장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뻔히 보이는 역경
펠리페 우비나



42

42 인생의 사명은 지금부터

젠 핀보로우

자신감과 희망 신앙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를 알아본다.

45 내 삶의 복음: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50

46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묶이어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독일에 있는 청년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지 들려준다.

49 포스터: 준비가 되었나요?

50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셰리 앤 데 라 크루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를 도와주셨잖아. 그래도 훔쳐볼 거야?

52 우리들 공간

54 장거리 가정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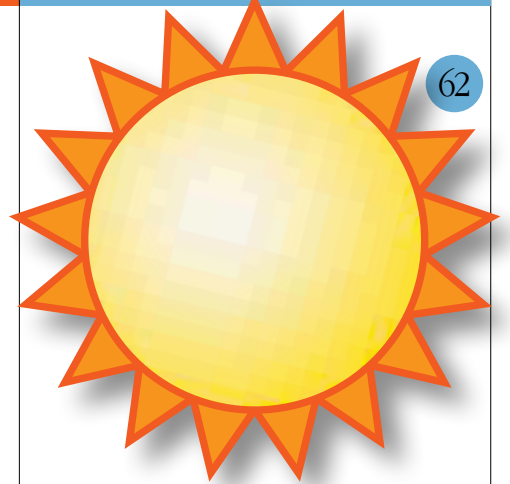
루이스 펠리페 비에라-메소네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계실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가정의 밤을 하셨다.

55 나는 어떻게 아는가: 넌 이미 알고 있어

엘리자베스 스티트

56 질의응답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62

58 여러분의 전자통신 예절은 어떤가요?

린드세이 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60 자메이카 박자에 맞춰
강종강종 뛰기

메건 워더즈

자메이카에 사는 두 남매를 만나보고, 그 아이들이 그토록 훌륭한 신앙이 있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62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빛 되기

64 함께 나누는 시간: 성신은 모든 진리를 증거해요

샌드라 태너, 크리스티나 프랜코

66 우리들 이야기

68 벽 위의 그림자

패트리샤 알 존스

데지레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0년 6월호, 제47권, 제6호
리아호나 09286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토르프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라셀 엘 벡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버그, 요시히코 가구찌, 폴 피아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밥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테커, 에니 존스, 조슈아 제이 퍼키, 제드 이 패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제니 토마스, 볼 벤덴버그, 줄리 워윅
선임 비서: 로열 듀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우, 콜레트 네베트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터마커, 케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낄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27호, 제47권, 제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장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예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툴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ne 2010 Vol. 34 No. 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성인

이번 리아호나에는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 자녀와 부모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자료 등 이 주제에 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다면 www.gospeletopics.lds.org를 방문하여 "Internet"을 주제로 한 글들을 읽어본다.



"봉사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되다"(16쪽)에서 칠십인인 케네스 존슨 장로는 부름에 성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한다. 특정한 부름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www.lds.org에서 "Serving in the Church"를 방문한다.



이번 달 작고 단순한 일(8쪽)은 가족 대화를 주제로 다룬다. 가족을 강화하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www.lds.org/hf를 방문하여 "Building a Strong Family"를 클릭한다.

www.liahona.lds.org에서 캄보디아 후기 성도들에 관해 더 알아본다.

청소년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50쪽)에서 셰리 앤 데 라 크루스는 학교에서 자신의 정직성이 시험대에 올랐던 경험을 들려준다. 정직의 중요성에 관해 더 배우려면 www.gospeletopics.lds.org를 방문하여 "Honesty"를 주제로 한 글들을 읽는다.

어린이

여러분의 전자통신 예절은 어떤가요?

www.liahona.lds.org에 나오는 온라인 퀴즈를 풀면서 스스로 알아본다. 또한 매체 사용에 관한 특별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다.



73쪽과 같은 색칠하기 및 다른 재미있는 활동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하여 "Children's Activities"를 클릭한다.

여러분의 언어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교회 자료를 찾아보려면 www.languages.lds.org를 방문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젯빛 날개 카나리아

60 여 년 전, 제가 젊은 나이에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와드 회원인 캐서린 맥키라는 미망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매님의 유품 중에는 애완용 카나리아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 친구들에게 남겨진 두 마리는 온 몸이 샛노란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빌리라고 불렀는데, 빌리 역시 노란 깃털을 달고 있었지만 양쪽 날개에 약간 회색 깃털이 섞여 있는 게 조금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맥키 자매님은 제게 남긴 쪽지에 이렇게 적어 두셨습니다. “감독님, 빌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어요? 조금 볼품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최고랍니다.”

맥키 자매님은 날개에 회색 깃털이 섞여 있는 그 카나리아와 무척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빼어난 미모라는 축복이나 사교성이라는 은사도 받지 못하셨고, 자손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노래는 사람들이 등에 짊어진 짐을 기꺼이 지고 맡은 일을 더욱 잘 해내도록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날개에 회색 깃털이 섞여 있는 노란색 카나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노래 부르는 법을 배운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 중 일부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지도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이를 먹어 등이 굽거나 근심으로 괴로워하거나, 의심으로 가득 찬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량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근심에 용기로, 실망에 쾌활함으로, 승리에 겸손으로 맞설 역량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올바른 시각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과 능력을 새롭고 깊이 있게 인지하는 경험을 해 보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품성은 종종 미모나 매력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주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권고도 지금도 메아리가 되어 울립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구주께서는 정기적으로 회당에 다니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무리 중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버나움에 사는 어부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의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시몬은 신앙이 강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날개에 회색 깃털이 섞여 있는 노란색 카나리아는 구주의 완전한 신뢰와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이 말씀을 활용하여 가르치기

“가르칠 때, 반원들에게 특정한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거나 경청하게 하는 것은 종종 도움이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55쪽) 가족이 몬슨 회장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본다. 이 기사를 함께 읽은 후, 각자 배운 점을 나눌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몬슨 회장의 말씀에 대해 간증을 하면서 마친다.

선지자를 통해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50쪽 참조) 몬슨 회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옹호자들이 아닌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서 힘과 열의가 있는 선교사를 찾아내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구속주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완전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며 지금도 양쪽 날개에 회색 깃털이 난 노란색 카나리아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어 이곳에서 그분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허우적거리겠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져야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한 주님이시여, 다시 한 번 분투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¹

우리가 가난하고 억압된, 학대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갈릴리 사람의 모범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노래가 흘러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

주

1. “Fight Song.” Yonkers 고등학교.

참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몬 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품성은 종종 미모나 매력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년들은 지금 현재, 또는 미래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고민할 수도 있다. 참된 아름다움에 관해 철심인 린 지로빈스 장로님이 한 다음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본다.

- 청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은 얼굴에서 빛나는 행복과 정결함으로 나타납니다.
- 자연스럽게 번지는 정결한 웃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참된 아름다움은 그림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영의 은사입니다.
- 정숙함은 밖으로 나타나는 신호이며 내적 아름다움의 요건입니다.
- 만약에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낙담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눈을 통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이 보일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 정결한 여성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성은 보통 남자들처럼 여성을 “보지 [않]”습니다.(사무엘상 16:7 참조) 그런 남성은 순수하고 쾌활한 마음에서 발산되는 참된 아름다움에 이끌릴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청남을 찾는 청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이 행복해지고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 주님 앞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용모에 주님의 모습을 새길 특권이 있습니다.(엘마서 5:19 참조) 그보다 더 참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말씀 전문을 읽으려면 Lynn G. Robbins, “True Beauty,” *New Era*, 2008년 11월호, 30쪽을 참조한다. 청년들은 *리아호나*, 2009년 10월호, 36쪽, “미운 오리새끼인가, 당당한 백조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에서 에롤 에스 피펜 장로님이 전한 비슷한 조언을 읽을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몬 스 회장님은 맥키 자매님이 남긴 세 마리 카나리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온 몸이 샛노란 두 마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양쪽 날개에 회색 깃털이 있어서 완벽해 보이지 않았습니. 그러나 회색 깃털이 있는 그 새는 노래를 무척 아름답게 불렀기 때문에 맥키 자매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만큼 아름답거나 똑똑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주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고 용감하게 생활하며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쪽 날개에 회색 깃털을 단 노란 카나리아처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맥키 자매님의 모습과 맥키 자매님이 특별하게 여긴 카나리아에 색칠해 보세요. 그런 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적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1. _____
2. _____
3. _____

성찬을 취하며 성약을 새롭게 하다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한다. 자매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을 제정하셨다

“예수께서는 빵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마태복음
26:26).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관습에 따라 물로
희석된 포도주 잔을 취하여 감사 축복을
하신 후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들리시면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셋째마네와 골고다로 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일 이후로 계속해서
성약의 자녀들은 더 새롭고 높으며 더
거룩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¹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찬을 취하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이생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대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

매주 성찬식 모임에서 우리는 구주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대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²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얼마 전에 저는 침례를 받는
여덟 살 된 소녀 곁에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쯤 그 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난 침례를 받은 후
하루 종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문 교육을 위한 제언

방문하는 자매와 그 가족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자매가 성찬을
통해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도움
방법을 찾아본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가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거나
도움(교통편,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
옆에 앉아줄 친구 등)을 주겠는가?

개인적인 준비

누가복음 22:19~20
고린도전서 11:23~28
제3니파이 18:1~12

그 아이의 완벽한 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우리
모두가 배우듯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모든 나쁜 상황이나 잘못된 선택들을 늘
피하지는 못[한다는] …… 사실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

우리 힘으로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구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신앙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³ ■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7쪽.
2.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야호나, 2001년 1월호, 8쪽.
3. 줄리 비 벡, “기억하고, 회개하며, 변화됨”, 리야호나,
2007년 5월호, 110~111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세계의 교회 역사

나이지리아

19 50년대에 몇몇 나이지리아인들은 잡지 기사와 교회 서적을 통해 교회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 본부에 편지를 보내어 교회의 가르침에 관해 더 알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응답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할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내전, 까다로운 비자 심사, 교회를 관리할 지역 신권 지도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 단위 조직을 공식적으로 설립하지 못했다.

1978년이 되어서야 교회는 마침내 선교사들을 나이지리아에 파견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이 도착해 보니,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그 해 11월에 첫 침례식이 집행되었으며, 같은 날에 첫 번째 지부가 조직되었다.

1987년에는 나이지리아 교회 회원 수가 거의 만 명에 이르렀으며, 1999년에는 다른 어떤 아프리카 국가보다 더 많은 42,746명으로



집계되었다. 나이지리아 아바에는 2005년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헌납한 성전이 운영되고 있다.

위: 나이지리아 교회 회원들이 연차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모였다.
오른쪽: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나이지리아의 교회	
회원	83,919명
선교부	4개
스테이크 및 지방부	32개
와드 및 지부	256개
성전	1개

가족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 식사, 경전 공부, 가정의 밤과 같이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는 먼저 전자기기를 끄거나 치운다.
- 매일 적어도 한 끼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한다.
- 정기적인 가족 활동을 계획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소풍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함께 놀이를 한다.

- 모든 가족이 의견이나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토론회를 연다.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며,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십일조—가난한 이에게도 계명입니다

린 지 로빈스 장로
철십인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 잠자거나 일(또는 공부)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매일 몇 시간 정도는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데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다음 제언 중 한 가지를 하는 데 매일 한 시간씩을 사용한다면 일주일, 한 달, 일 년 동안 목표나 계획 또는 과제를 몇 가지나 성취할 수 있겠는가?

- 경전을 읽거나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기한다.
- 운동경기에 참여하거나 운동을 한다.
- 음식 조리, 노래 부르기, 바느질, 원예,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재능을 발전시킨다.
- 가정의 밤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 좋은 책을 읽는다.
- 여러분의 워드 또는 지부에서 선교 사업을 나간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 주는 편지를 쓴다.
- 외국어를 배운다.
-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
- 가정 복음 또는 방문 교육을 한다.
- 교회 부름을 수행한다.
- 일지를 쓴다.

22 쪽에 실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기사를 읽으셔서 여러분이 받은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방법을 더 알아본다.

1998년 10월에 허리케인 “미치”가 중앙아메리카 곳곳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재난에 희생된 사람들을 몹시 염려하셨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모든 것을, 즉 음식과 옷과 세간을 잃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와 테구시갈파, 그리고 니카라과 마나과 등 여러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랑 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굶주린 과부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각 도시로 간 이 현대의 선지자는 희생하고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빈곤한 사람에게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힝클리 회장님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배로 실어온 음식과 옷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염려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1998년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온두라스 교회 회원들을 방문했다.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도록 돕고 싶었습니다.(말라기 3:10; 모사이야서 2:24 참조)

힝클리 회장님은 십일조를 낸다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항상 있을 것이며, 그들이 거할 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005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간증 키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간증을 키우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고 물문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주에 대한 간증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만 마련이지만 제가 선택해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해로운 것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를

때 간증이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앤 소다비, 캄보디아

선택의지는 영원한 발전에서 필수적이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구원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에서 천국회의가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계획에는 선택의지라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모반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말하러”(모세서 4:3) 했습니다. 그 결과, 루시퍼와 루시퍼를 추종하던 영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줄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미리 계획되어 있었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욥기 38:7 참조)

필멸의 삶 동안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지, 영원한 비참함에 처할지가 결정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며]”(교리와 성약 130:20) 이 율법에는 “형벌이 부가되었[다]”고 가르칩니다.(앨마서 42:22)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에는 그 행동에 따른 결과도 선택하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7 참조) 결과가 즉각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화평과 영생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죄와 비탄으로 인도됩니다.¹

구약시대의 선지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주
1. 신앙에 충실함(2004년), 80쪽 참조.

타락 후에 아담과 이브는 “도덕적 선택의지, 즉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49쪽)

1. 필멸의 삶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주는 시험 기간입니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2. 우리가 선과 악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니파이후서 2:11~16; 교리와 성약 29:39 참조)



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모로나이서 7:12~17 참조)



4.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에는 그 행동에 따른 결과도 선택하는 것입니다.(신명기 11:26~28; 30:15~20; 갈라디아서 6:7; 요한계시록 22:12 참조)



5. “[우리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힐라맨서 14:30~31 참조)



6.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니파이후서 2:27; 교리와 성약 58:26~28; 93:20 참조)



7.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악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29; 요한복음 8:34 참조)



8.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유혹에 저항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9.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앨마서 13:28 참조) ■

“그러한즉 …… 사람은 자유로우며 ……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니파이후서 2:27)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명시된 것 제외; 지구 사진: © CORBIS;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게리 캡; 남자와 경찰관 사진 삽화: 로버트 케이시

반석 위에 세워진



올슨 에프 휘트니는 1855년 7월 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1906년 4월 9일에 올슨 에프 휘트니를 사도로 성임했다. 다음 기사는 올슨 에프 휘트니가 1916년 10월 7일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되었다.

올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물을 사용하는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물을 훌쩍훌쩍 마시는 모습을 보고 몹시러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 즉 성경에 따르면 구주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를 사용하셨으며, 그것이 자신의 피라고, 즉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저도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실 때에 포도주를 사용하셨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친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즉, 다른 교회들은 서적과 전통, 인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반면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계시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어떤 사실이 책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18 47년, 후기 성도들은 브리검 영 회장의 지도에 따라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황소 마차를 몰고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향하는 길고 험거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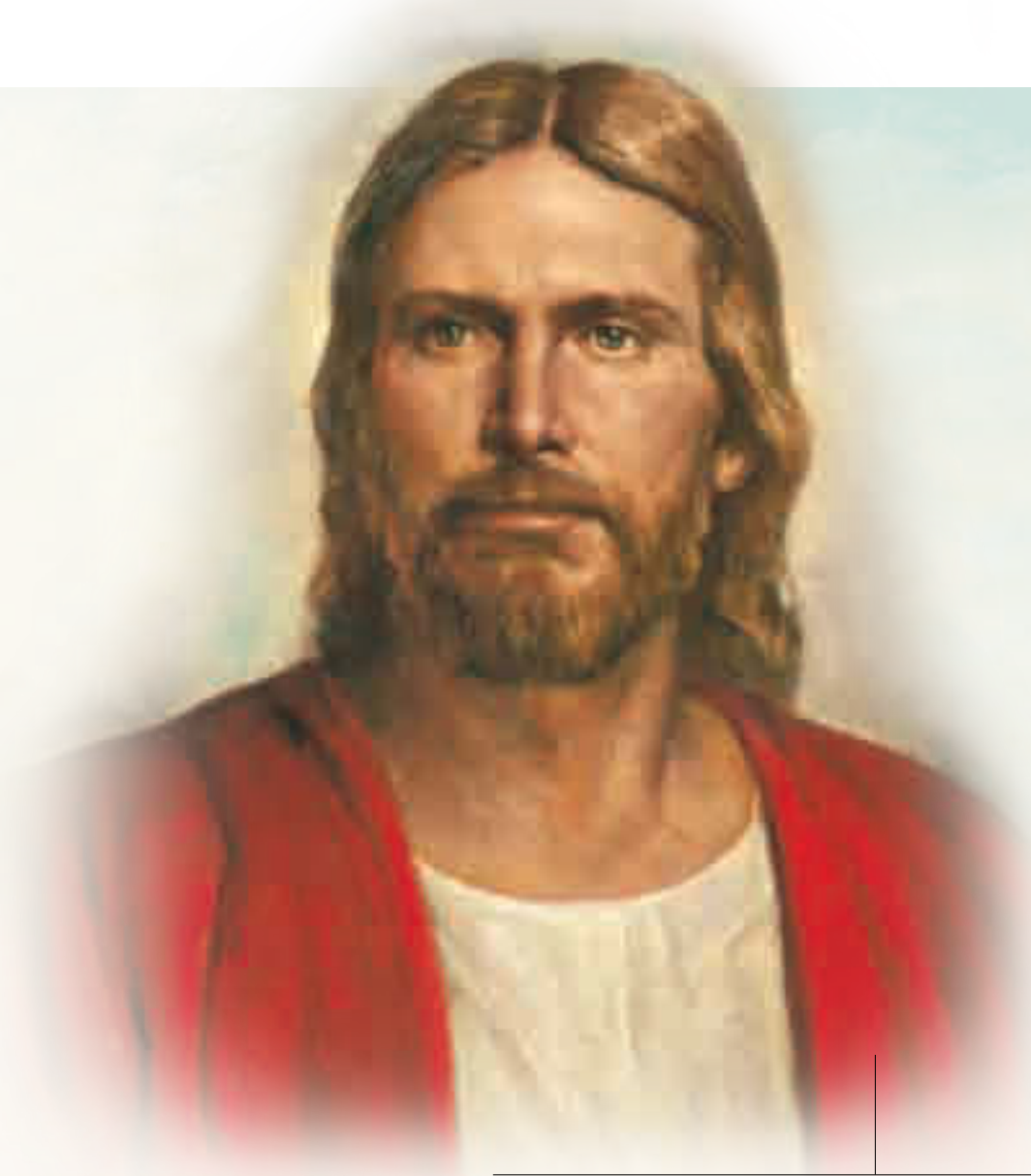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그 계시대로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도와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이곳 유타에서 황소 마차를 끌고 미주리 강으로 출발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보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에 활용되는 수단인 향상된 과학 설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까요?

오래 전에 [다른] 교회에 속한 학식 있는 고위 성직자가 유타에 왔는데 ……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물론” 성찬식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주님의 만찬을 집행하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 비판할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찬식에서 포도주 대신에



다해 말씀드립니다. 책으로 발행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선반 위에 놓아 둔 것들인 반면, 나머지 부분은 힘차고 생명력으로 가득하며 현재 상태, 즉 발전하는 우리의 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조차도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죽은 글자를 살아 있는 계시에 우선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릇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2천 년 전에 유대인들과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든, 50~60년 전에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든 그것이 현재의 계시, 즉 주님께서 가장 최근에 그분께서 선택하시거나 지명하신 종들이나 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들은 분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아무리 참된 계시라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계시보다 우선하여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리이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일은 가변성이나 모순 없이 그 계명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2년마다 회합하여 옛 법 또는 목적을 다한 이전 법규를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시대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명하신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 조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전진합니다
하늘에서 전해지는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와 구별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계시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정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변화에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 교회를 감리하기에 충분히 크거나 충분히 훌륭한 책은 없습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것이 받아 마땅한 경의를



폐지합니다. 그러나 모순이나 자기 부정을 했다는 이유로 입법자들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다음 해에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신다고 하여 그분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는 찰나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창세기 22: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서 받은 계명 대신에 그 다음에 온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명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범법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언제까지나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고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전진합니다. 사업의 양상은 변하지만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는 찰나에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서 받은 계명 대신에 그 다음에 온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세워진 진리는 영원하며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할 때, 변경되고, 변경되고, 또 변경되는 많은 규범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비상구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보를 위한 신성한 계획이며, 완전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의 영은 향상의 영, 진보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되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함께 계속 나아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업과 함께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그분께서 금하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깨어서 크게 활약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합시다. 그분의 사업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여러분이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는]”[교리와 성약 50:24 참조]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

구두점, 단락, 철자, 대문자를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함; 소제목을 추가함.

변화를 일으키는 힘

익명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회원이었고 열다섯 살까지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청년 시기에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다가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다.

마약에 점점 빠져들었고 나는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버둥거렸다. 내 인생이 마치 꺼 버릴 수 없는 나쁜 영화처럼 느껴졌다. 정말 손을 떼고 싶었지만 이미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약 관련 범죄로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그제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내게 물몬경이 한 권 있었는데 우연히 엘마서 5장 7절이 눈에 들어왔다. “보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나니, 참으로 그가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깨어났느니라. 보라 그들이 암흑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이 영원하신 말씀의 빛으로 밝혀졌나니”

나는 내가 바로 암흑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변화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게 아니었다.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마약을 끊어 보려고 시도도 했었다. 어떤 것이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늘 다시 빠져들었다. 그런데 엘마서에서 그 구절을 읽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었다. 혹여 나에게서는 변화할 힘이 없더라도(사실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중독이라는 짐을 구주께 맡기던 그때를 기억한다.



중독이라는 짐을 구주께 맡겼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다.

나는 후기 성도 중독 극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부부 선교사가 12단계로 된 수업을 가르쳤고, 수업에서 얻은 가르침이 나를 구조했다. 그 부부 선교사는 오래 전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심어 놓은 신앙의 씨앗을 키워 주셨다. 선교사 분들은 내게 회개와 용서를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사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로부터 더 큰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주셨다. 나는 “[내]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엘마서 5:12)을 느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행복이 늘 복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주께 향하기로 결심한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냈다.

지금 내 삶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제 나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며 성전 의식도 받았다. 내 삶에 이토록 훌륭한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시다.

나와 같은 문제로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매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간증을 전한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행복으로 돌아오는 길은 분명히 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

중독 극복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싶다면 신권 지도자와 이야기하거나 www.ldsfamilyservices.org를 방문한다. 이 프로그램의 교재인 *Addiction Recovery Program: A Guide to Addiction Recovery and Healing*(물품번호 36764)은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케네스 존슨 장로
칠십인

봉사하도록 부름 받고 성별되다

적절한 신권 권세로 성별 되기 전에는 교회 부름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18 32년 2월 16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받은 시현 속에는 다음과 같은 위안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도다.”(교리와 성약 76:5~6)

교회 회원으로 생활해 오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께 봉사하라는 그분의 권유에 응할 때 받는 약속된 축복과 관련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름을 주기 전에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옳은 행동을 확증해 주는 확신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얻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흠족할 만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모사이아서 5:13 참조)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에녹도 주님으로부터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모세서 6:31 참조) 에녹이 시현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영이 네 위에 있나니, 그러즉 네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모세서 6:34) 하고 말씀하시며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어떻게 능력을 주실 것인지를 에녹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경전에는 이후에 에녹이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모세서 6:39)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경험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을 성별하는 원리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 네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민수기 27:18, 20)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정해 주신 방식을 통해 우리는 약점과 한계,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와 리하이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시니, 저들이 마치 불로 채워짐 같이 충만하게 되어 기이한 말을 할 수 있더라.”(힐라맨서 5:45; 또한 17~19절 참조)

영으로 가르침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즉 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에게 하노니—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임되었느냐?”(교리와 성약 50:13) 주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50:14)

분명히,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63:64)

“나에게 성임을 받아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50:17~18)

교회에서 지도자나 교사 직분으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몇 가지 경전 구절과 짜맞춘 인간의 철학”³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에녹, 니파이, 리하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나 원리에 관해 들었거나 읽은 내용으로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원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반영합니다.(요기 32:8 참조) 선지자 조셉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의 영감 어린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들을 전파하십시오. 그 원리들을 거듭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그 원리에 관해 새로운 이해와 빛이 더해지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이해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⁴

구주의 모범을 따름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태복음 7:28~29;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7:36~37 참조)

물론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마는 이 접근법을 구현했다는 면에서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앨마서 31:5)

복음을 가르치라는 성스러운 책임을 말할 때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릅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한복음 7:16) ■

주

1. 경전에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경건”이라는 개념과 관련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이 신성한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제시했다. “경건은 사랑이 어우러진 깊은 존경입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86쪽)
2. 경전에서 “성임”과 “성별”은 서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한다.(교리와 성약 20:67; 25:7 참조; 또한 Joseph Fielding Smith, *Doctrines of Salvation*, Bruce R. McConkie 편, 3 vols. [1954–56], 3:106 참조)
3.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27쪽; 또한 모사이어서 18:19~22 참조.
4. Hyrum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23.



성별됨

“성별은 교회에서 정해진 절차이며,

남성과 여성은 교회 조직, 정원회, 보조 조직 직분[에서] …… 특별한 책임을 맡도록 ‘성별’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별이 형식적인 행위로 보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성별을 기대하고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결과적으로 삶이 향상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별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성별되는 것입니다. 상스럽거나 천하거나 사악하거나 저급하거나 저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성별되는 것입니다. 사고와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으로 성별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충실할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President Spencer W. Kimball(1895~1985),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ward L. Kimball 편집(1982), 4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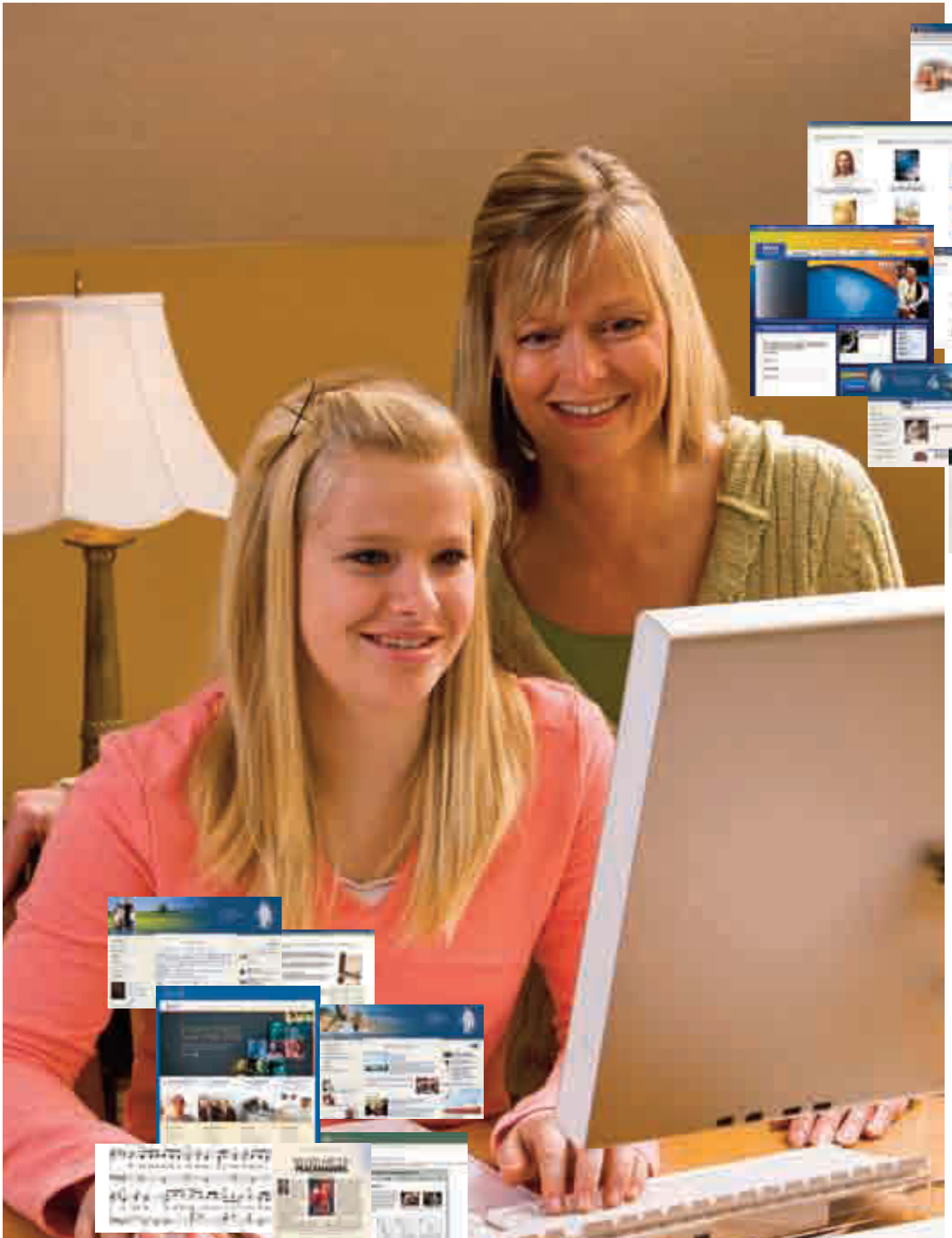


사진 출처: 존 루크



건설적인 인터넷 사용

인터넷에서 우리는 삶을 강화하고 풍요롭게 해 줄 수많은 자료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많은 웹사이트는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준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도 현실 생활을 유지하는 데 다음 제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 제한

미국 아이다호 주 출신인 레베카 렌프로는 거의 매일 블로그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도 읽었다. 레베카는 마음 속에 늘 “작문” 생각이 가득했다. 항상 단순히 자녀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자녀들과 무엇을 했는지를 마음 속으로 블로그에 기록했다. 레베카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레베카는 이렇게 말한다. “영이 저를 일깨워 주었어요. 블로그를 기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문제라는 점을 말이에요. 사실상 제 삶의 일부분을 저버린 것이죠. 제 자녀, 제 남편과 함께할 귀중한 시간을 팔아버리고, 경전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을 팔아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영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잠자는 시간까지도 팔아버린 셈이었어요.”

렌프로 자매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방해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그저 어떤 것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전한 오락물을 시청하거나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거나 가장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고양시키는 매체를 선택하라

미국 워싱턴 주에 사는 에이미 폴슨은 다른 엄마들이 만든 웹사이트에 감사해 한다. 자녀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공과 제언과 활동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시청각자료가 필요할 때면 에이미는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아 인쇄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교회 잡지 기사, 대화 말씀, 온라인 교재를 찾아본다.



가장 좋은 선택

“새로운 매체 사용에 관한 여러분의 선택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고를 넓히고 기회를 확장하며 영혼을 살피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앤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교회소식 2쪽.

폴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할 때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아요. 또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치느’(교리와 성약 68:28) 엄마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받죠.”

인터넷으로 복음을 나누다

미국 유타 주에 사는 린 플로이드라는 한 회원은 가족 역사 웹사이트를 만들어 조상의 사진과 역사를 실었다. 플로이드의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다른 유사한 웹사이트들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리에 대해 더 많이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침례를 받고 싶거나 교회에서 다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부름을 완수하며, 결혼생활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인터넷 사용 지침을 세운다면 인터넷은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가족을 강화시키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이트는 여러분의 사고를 넓히고 기회를 확장하며 영혼을 살피우는 것이어야 한다. ■

주

1. 맬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 105쪽.

교회 웹사이트

교회 웹사이트에는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때 유용하고 훌륭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대화 말씀을 비롯하여 교회 역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맡은 부름에 유용하게 쓰일 교회 사이트들은 회원들이 복음 자료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회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교회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복음을 나누고, 공과를 준비하고,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LDS.org:** 대회 말씀을 찾고, 최근 교회 소식을 읽고, 다른 많은 교회 자료에 접속한다. 여러분의 언어로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languages.lds.org를 방문한다.
- **Mormon.org:** 이웃, 가족, 친구들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한다. 이 사이트는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하나님의 본질, 영원한 가족,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여 복음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을 설명한다.
- **JesusChrist.Lds.org:**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을 읽는다. 스페인어와 영어로 이용할 수 있다.
- **Liahona.Lds.org:** 리아호나에서 좋아하는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전시관이나 어린이 활동 같은 자료를 찾는다.
- **ProvidentLiving.org:** 식량 비축, 취업, 교회 인도주의 사업 등 자립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배운다. 영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가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이용 가능하다.
- **LDSjobs.org:** 일자리를 찾고, 학교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 구직자들을 알선하고, 직업을 찾는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운다.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이용할 수 있다.
- **YouTube.com/MormonMessages:** 복음 원리에 관한 간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 스페인어와 영어로 이용할 수 있다.
- **Temples.Lds.org:** 전 세계에 있는 성전 정보와 사진들을 본다.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이용할 수 있다.
- **New.FamilySearch.org:** 여러분의 가계를 찾아보고 조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다. 성전 사업을 위해 이름을 준비한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는 올 연말에 이용

가능하다.

- **FamilySearchIndexing.org:** 이 사이트에서 교회 가족 역사 자료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색인 작업하는 일을 자원하도록 한다.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이용할 수 있다.
- **Countries.Lds.org:** 여러 나라에는 각각 그 나라만의 교회 웹사이트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이트에서는 교회 영화를 여러 편 볼 수 있다. 덴마크 사이트에서는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감 어린 말씀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이트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
- **Languages.Lds.org:** 각 언어에는 LDS.org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번역 자료 목록이 있다. 대부분 사이트는 연차 대회 말씀과 교재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일부 사이트는 그 밖의 자료들을 제공한다.
- **Images.Lds.org:** 복음 그림, 교회 역사 그림, 성전 사진 등을 내려 받는다.
- **LDS.org/braille:** 스페인어와 영어로 점자 문서를 찾는다. 내려받기와 인쇄가 가능하다.
- **ByuTvInt.org:** 온라인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 프로그램을 보거나 여러분의 지역에서 그것을 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이용할 수 있다.
- **Music.Lds.org:** 찬송가와 기타 음악을 듣고 인쇄한다.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이용할 수 있다.(www.music.lds.org에서 **Music**을 클릭하고 **Hymns**를 클릭한 다음, 언어를 선택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일부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하고 경험하는 일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 즉 잠재적인 질식과 숨 막힘, 억눌림, 구속 등에 대해 사도로서 소리 높여 경고합니다.

사물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이 기회를 고대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느꼈던 열렬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 너희 영혼의 복리에 대한 …… 많은 소망과 염려로 짓눌리고 있느니라.”(야곱서 2:3)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교리와 성약 121:45) 제 영혼을 적셔 왔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면서도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이 중요한 주제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성신이 함께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물문경에서 진리가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것을 보고 오랫동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야곱서 4:13; 또한 교리와 성약 93:24 참조)

이 구절에 나오는 진리의 첫 번째 주요 요소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하는



있는 그대로

교리적인 기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막거나 방해하기 위해 대적이 사용하는 공격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란과 사악함이 증가하는 현대 세상에서 여러분은 순종하고, 거룩한 성약을 지키며, 사물을 한결같이 있는 그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운명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¹ 육신을 얻는 것이 우리가 신성한 운명을 향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 육신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기 위해, 그리고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이 순결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차지했을 때 사탄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쫓아내시자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육신이 없는 것보다는

돼지 몸이라도 들어가고 싶어했습니다. 육신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이 없는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악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는 순간, 악마는 힘을 얻게 됩니다.”²

우리의 육신은 전세 상태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강렬한 경험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영과 육신은 육신이 정신의 도구이자 우리 인격의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습니다.”³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 진리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역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는 능력 등은 육신을 통해 증대됩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교실에서 우리는 상냥함, 사랑, 친절, 행복, 슬픔, 실망, 고통, 심지어는 육체적 한계라는 도전까지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우리는 영원을 위해 준비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서 경전에 묘사된 것처럼 “육체를 따라”(니파이전서 19:6; 엘마서 7:12~13) 반드시 배워야 할 가르침과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육신이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그리고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니라.”(교리와 성약 88:15) 육신과 영이 우리의 실재이자 정체성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앞으로도 늘 진리입니다. 육신과 영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면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고,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부활하고 승영한 몸으로 안전하게 그분 처소로 오게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만들며 영원한 진보를 방해하려 합니다. 거짓의 아버지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우리 모두를 “자기처럼 비참하게”(니파이후서 2:27)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왜곡하려고 힘씁니다.

육신이 없는 사탄은 영원한 진보가 중단되었습니다. 강바닥으로 흘러가는 물이 댐에 갇히듯이 대적의 영원한 진보도 좌절되었습니다. 사탄에게는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모반했기 때문에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고 필멸의 삶을 영위하는 축복과 경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육신을 입은 영만이 알 수 있는 가르침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또한 결혼할 수 없으며 생육과 가족생활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온 인류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사탄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서 정죄 받다라는 단어가 지닌 큰 의미 중 한 가지는 계속 발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서 육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루시퍼가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고자 육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에 대한 결정적인 모순 중 하나는 육신을 얻지

못하여 비참해진 대적이 우리가 육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자기처럼 비참해지도록 유혹하고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사탄이 얻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바로 그 도구가 우리를 육체적, 영적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그의 주요 표적입니다.

대적의 공격

대적은 우리가 육신을 오용하고 육신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격 방법을 인식하고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과 육신은 육신이 정신의 도구이자 우리 인격의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누구라도 순결의 법을 여기거나 약물이나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스스로 육신을 손상시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육체라는 그릇된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육신을 오용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을 더럽히는 일은 모반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모사이아서 2:36~37; 교리와 성약 64:34~35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육신을 오용하는 모든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제가 이를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모사이아서 4:29)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교리적인 근거를 스스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교리와 성약 88:118) 배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자 소망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심에 관하여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여러분의]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면”(모사이야서 4:30)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보호받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충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할 때 여러분은 육신을 오용하라고 유혹하는 대적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 공격을 물리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육신의 중요성을 최소화시키도록 유혹하려고 힘씁니다. 특히 이런 공격은 가장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저는 대적이 어떻게 우리를 달래고 속여서 육욕적으로 방심시키는지(니파이후서 28:21 참조), 그리고 우리가 전세에서 기뻐 소리쳤던(욥기 38:7 참조) 지상의 가르침과 경험들을 위태롭게 하도록 어떻게 유혹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건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한 쾌감과 아드레날린의 “질주”를 느끼려고 유별나고 위험하며 극단적인 활동을 하여 육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육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해가 없어 보이는 행위와 모험에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멸의 삶을 경험하며 배우라고 주신 바로 그 도구를 단지 전율이나 유희를 좇으려고, 혹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혹은 인정을 받으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육신의 중요성을 최소화시키는 일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의 일부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지속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디지털 기기,

오락거리, 우회로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관계를 등한시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현재와 영원을 위해 거룩한 신권 권능으로 함께 인봉된 젊은 부부가 과도한 비디오 게임, 혹은 온라인 교제에 중독되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과 영을 둔감하게 하는 비디오 혹은 온라인 게임 때문에 젊은 남성과 여성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직업적 혹은 학문적 성취를 연기하거나 상실할 수도, 궁극적으로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 너는 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며, 네 재능을 알리지 아니하려고 묻어 두지 말라.”(교리와 성약 60:13)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나 형제님, 오늘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며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비디오 게임과 여러 형태의 컴퓨터 통신이 우리 육신의 중요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현실을 복제하고 보강하여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복잡한 외과수술을 해 보는 유용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모의 비행 장치로 비상 착륙 연습을 반복해서 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와 기술자들은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로 야기되는 인명 피해와 건물 파괴를 줄일 정교한 설계와 건축 공법을 고안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각 예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의 사실성이 높을수록 더 현실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성이라는 말은 현실과 현실 묘사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사실성이 높고 목적이 선할 때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구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그 밖의 유사한 이미지들은 최근에 완공된 새로운 성전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완성 후 각 구성요소의 모습과 느낌이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 직물, 가구, 비품, 조명, 규모, 비율 등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전 전체와 모든 구성 요소가 상세하게 설계됩니다.



이 이미지는 컴퓨터로 만든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인봉실입니다.

컴퓨터로 만든 실제 묘사(26쪽)와 다음 쪽에 있는 실제로 완공된 인봉실 모습 사이의 사실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예에서 높은 사실성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즉 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성이 높고 목적이 악한 경우,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은 영적 장애와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해 보거나 게임이 아니었다면 전혀

생각하거나 해 보지 않았을 일들을 ‘이건 단지 게임일 뿐이니까.’ 하고 생각하거나 해 보도록 유혹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 사이버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와 경험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 즉 잠재적인 질식, 숨 막힘, 억눌림, 구속 등에 대해 사도로서 소리 높여 경고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영화, 음악과 같은 다른 형태의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이버 세상에서 더욱 심각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악하고 퇴폐적인 목적을 조장하며 높은

사실성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감각을 무디게 하고 영을 파괴하는 사이버 기술의 영향력을 경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오용하도록 유혹할 수 없을 때 대적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육신을 입은 영인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서 차차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우리가 마치 육신을 입지 않은 전제 상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깁니다.

만약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사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진, 문자 메시지, 이어폰, 온라인 상에 자신의 삶에 대해 올리는 것, 온라인 교제, 중독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과 미디어 사용 등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빠져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훌륭한 대화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로 주고 받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영상과 자료가 신체 능력과 경험을 대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한 여성이 사이버공간에서 남자친구와 맺은 강렬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묘사한 다음 글을 신중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의사소통 수단이 어떻게 육신의 중요성을 최소화시켰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PFSlider(남자의 아이디)는 나의 일상이 되었다. 실재하는 모든 것들은 멀어져 갔다. 내 몸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피부도, 머리카락도, 뼈도 없었다. 모든 욕구는 생각의 흐름으로 바뀌어 내 전두엽에 도달했다. 야외도, 사회 생활도, 날씨도 없었다. 오직 컴퓨터 화면과 전화기, 의자와 물 한 잔만이 있을 뿐이었다.”⁴

이와 반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훈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을 알고”(테살로니가전서 4:4)

앞서 언급했던, 최근에 주님의 집에서 결혼한 젊은 부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미성숙한 또는 잘못된 인도를 받은 배우자는 비디오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에 과도한 시간을 쏟거나 디지털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한

시간이 비교적 해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상에서 몇 분의 휴식이 필요하며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며, 함께 울고 웃고, 계속 풍성하게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쌓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점차 해가 없어 보이던 오라키 해로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다정하게 껴안아 줄 때 느끼는 따스함과 간증을 나누는 상대방의 눈으로 전해지는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인봉실의 실제 모습입니다.

진실 등, 육신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영속적인 가치도 없는 아주 그럴듯한 환상 때문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레이맨과 레뮤엘이 오래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감각이 없어”(니파이전서 17:45)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서 차차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Second

Life”와 같은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맞는 아바타, 즉 사이버 공간 속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을 허위로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가장된 인물은 그 개인과 비슷합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명확한 예입입니다. 앞서 저는 시물레이션이나 모형의 사실성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인 사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것은 실제 인물과 가상 인물, 즉 사이버 공간 속 인물 사이의 유사함을 뜻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다음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사실성이 결여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릭 후게스트랏은 “긴 회색 머리를 뒤로 묶었으며, 짙은 구레나룻과 희끗희끗한 팔자 콧수염을 기른 건장한 [53세의] 남성이다. …… [릭은] 밤에는 6시간, 주말에는 종종 14시간 동안 계속 더치 후렌빅이라는 인물로 [시간을 보낸다]. 더치 후렌빅은 신장이 180센티미터에 근육질인 …… 사이버 세계의 릭이다. 이 캐릭터는 더 젊고 더 멋진 모습의 [릭]처럼 보인다. ……

[그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 그의 아내인 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후게스트랏씨는 화면 상으로 키가 크고 날씬한, 빨간 머리 여성과 온라인 채팅을 한다.

릭은 구성이 탄탄한 디지털 판타지 세계인 Second Life의 컴퓨터 세상 밖에서는 그 여성을 만나 본 적이 없다. …… 전화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들의 관계는 실제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은 개 두 마리를 키우고, 함께 대출금을 갚으며, 사이버 세상에 있는 가게에서 쇼핑하고 오토바이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하며 여러 시간을 보낸다. …… 서로 유대감이 너무나 강해서 3개월 전에 후게스트랏씨는 빨간 머리 캐릭터를 조종하는 38세 캐나다 여성 자넷 스피엘만에게 자신의 가상 부인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릭과 법적으로 결혼한 여성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후게스트랏씨와 결혼한 지 7개월 된 수 후게스트랏은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해요.’ 하고 말했다.”⁵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기술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기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우고, 통신하며, 삶을 고양시키고 유쾌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인위적인

인간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인간관계를 허비하고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여 경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박사학위 졸업생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 대략 남성 중 40퍼센트와 여성 중 53퍼센트는 가상 친구가 실제 친구와 같거나 더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대 적이 우리가 육신을
오용하도록 유혹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육신을
입은 영인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서
차차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4분의 1 이상은 지난 주에 있었던 일 중에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컴퓨터 세상에서 일어났다고 답했습니다.”⁶

주님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라고 진리를 정의하신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영속적이며 시의적절합니까?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엘마서 32:35) 엘마는 빛과 선이 쉽게 분별되기에 그것을 맞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는 자들은 ……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같이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것같이 아나니, 그의 충만함과 그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음이라.”(교리와 성약 76:94)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컴퓨터로 나누는 대화에서 개인의 사실성은 줄어들며, 그렇게 나누는 대화의 목적은 왜곡되고 그릇되며 사악하고 영적인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위협할 만큼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장소와 활동들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돌아서도록 부탁드립니다.(디모데후서 3:5 참조)

이제 저는 대적이 가하는 공격의 특성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종종 익명성이라는 매혹적인 환상을 제시합니다. 루시퍼는 언제나 은밀히 자신의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모세서 5:30 참조) 하지만 블로그나 채팅 공간 혹은 가상 세계에서 가공 인물을 통해 익명으로 통신한다고 해도 배도가 익명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도덕한 생각과 말과 행위는 항상 부도덕한 것이며, 그것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 친구나 가족에게 줄 목적으로 CD나 DVD를 복제하는 것과 같이 비밀로 가려진 듯한 기만 행위는 어쨌든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위와 마음에 있는 소망에 따라 그분께 심판 받을 것입니다.(엘마서 41:3 참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도 그러한즉”(잠언 23:7)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찢림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죄악이 지붕 위에서 이야기되고 그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

저는 기술 지향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도사리고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경고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이나 급속한 변화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전 과정은 그 두 가지를 영원한 행복의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여러분이 육신을 오용하고 중요성을 최소화시키도록 조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가상 세계에서 반복되는 단조로움으로 대체하도록 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덕적 선택의지를 축복받은 영원한 영혼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 받는 필멸의 존재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사악하게도 사탄은 육신을 입은 영들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과 그분의 독생자가 성취한 속죄로 가능해진, “육체를 따라”(니파이전서 19:6; 엘마서 7:12~13) 받는 축복과 배우는 경험들을 상실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보호를 위해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교리를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진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상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해 보십시오.

1.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 사용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신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게 합니까, 아니면 성신의 동반을 방해합니까?

2. 다양한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생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 줍니까, 아니면 제한합니까?

여러분은 성신으로부터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응답과 영감과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이 말한 다음 가르침을 확인하며 거듭 말씀드립니다. “육신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이 없는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중요성에 관한 이 영원한 진리들은 대적의 속임수와 공격에 맞서 여러분을 강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 중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이해와 간증이 점차 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으로”(모로나이서 7:41) 말미암아 승영한 몸을 말합니다.

자라나는 세대

저는 특별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1997년 10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이 영적 모임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방문하신 날, 우리는 다양한 복음 주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했고, 특히 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감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순종하는 역량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장로님은 그 말이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조지 큐 캐넌(1827~1901) 회장님이 가르치신 다음 진리에 근거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맞서고, 보이는 악과 보이지 않는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며, 모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옹호하며 하나님의 시운을 세우고 건설할 용기와 결단력을 지닌 영들을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전복되지 않을 시운의 기초를 놓도록, 그리고 의롭게 되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할 자손을 일으키시기 위해 이 세대에 이 영들을 보내셨습니다.”⁷

부모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세대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세계 역사의 이 시기를 위해 예비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에 가장 용감한 영들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주 강조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젊은이들이 이 표현을 너무 자주 들어서 진부하게 여긴 나머지 그 중요성과 깊은 의미를 간과할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는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교리와 성약 82:3)된다는 점을 압니다. 그리고 캐넌 회장님과 맥스웰 장로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감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 자라나는 세대가 후기에 일어날 선과 악 사이의 전쟁에서 반드시 의지해야 할 주된 무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받은 종들을 통해 오늘날 젊은 남성과 여성의 “표준을 높이신”

것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상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영감 받은 지침은 환영하고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루시퍼가 끊임없이 육신을 오용하고 중요성을 최소화하도록 유혹하여 “표준을 낮추려”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대적의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이는 그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인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이라. ……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조셉 스미스—마태복음 1:5, 22, 37)

순종은 늘 성신과 함께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성신의 권능으로 작용하는 영적인 은사와 능력은 우리가 속임수를 피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러분과 저는 용감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 자라나는 세대가 후기에 일어날 선과 악 사이의 전쟁에서 반드시 의지해야 할 주된 무기입니다.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또 기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옛적과 같이 시작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와, 그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시험의 날에 지혜로우라. 모든 부정함을 벗어 버리라.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몰몬서 9:27~28)

이 영감 받은 권고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는 오늘과 미래에 닥칠 대적의 공격을 인식하고 물리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임된 책임들을 완수하고 주님의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속죄 희생을 하실 때 우리를 위해 몸이 멎고 부러지고 찢기셨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이 후기에 그분 교회의 머리에 서 계십니다.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이신”(니파이후서 1:15) 것은 가상 경험이 아닌 실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과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력을 축복받을 수 있고, 축복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의로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간악한 손길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또 앞으로 있을 그대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간증드립니다. 아멘. ■

2009년 5월 3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11, 214쪽.
3. Boyd K. Packer, “The Instrument of Your Mind and the Foundation of Your Character”, *Brigham Young University 2002–2003 Speeches*(2003), 2.
4. Meghan Daum, “Virtual Love”, *The New Yorker*, Aug. 25 및 Sept. 1, 1997, 82; 또는 Meghan Daum, *My Misspent Youth*(2001), 19.
5. Alexandra Alter, “Is This Man Cheating on His Wife?” *Wall Street Journal*, Aug. 10, 2007, pp. W8, W1.
6. Alexandra Alter, *Wall Street Journal*, Aug. 10, 2007, p. W8.
7. George Q. Cannon, “Remarks”, *Deseret News*, May 31, 1866, 203; 또한 *Journal of Discourses*, 11:230 참조.

캄보디아 후기 성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

채드 이 퍼레스
교회 잡지

늦은 봄, 우기가 한창인 캄보디아 프놈펜. 수 개월 동안 메콩 강으로 흘러 들어가던 톤레사프 호가 자연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물 흐름이 바뀌면 강 어귀에 있는 톤레사프 호는 수량이 다섯 배로 불어나고, 호수에 사는 물고기와 새들은 풍부한 먹이를 얻게 된다.

캄보디아 회원들은 흐름이 바뀐 강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를 경험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복음이 가져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다.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르는 기쁨은 그들의 영혼에 영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비록 이 나라가 암울한 시기를 겪었지만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과거의 암흑을 뚫고 나오는 새 날의 빛을 발견했다.

방향을 바꾸며

1970년대를 휩쓴 정치적 혼란으로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고 가족을 잃었다.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부 시엠리아프 지부 회장인 로이 번씨크는 1975년 당시에 아홉 살 소년이었다. 로이 회장은 그 해에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야만 했고, 다른 수백만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광활한

캄보디아 후기 성도들은 과거에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캄보디아 들판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

그때 로이 회장은 여덟 남매 중 다섯 명과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아픔을 견뎌 내기 위해 로이 회장은 늘 이것 한 가지는 고이 간직했다.



“저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로이 회장의 말이다.

로이 회장은 확고한 희망으로 어린 시절의 역경을 견뎌 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접했을 때도 금세 이를 알아보았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로이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성장했다.

로이 회장이 구주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것은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집에 찾아와서 가족과 나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 회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반대편 쪽: 지부 회장이자 시엠리아프 관광 가이드인 로이 번씨크는 관광객들에게 오래된 사찰들을 안내한다. 또한 자신의 관광용 자동차 안에 홍콩 성전 사진을 전시하여 후기 성도 성전에 관해 가르칠 기회를 찾는다. 왼쪽: 어린 시절에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썬썬 지부 회장 칸 사린은 함께 경전 공부를 하자던 아내 쉰썬 씨의 권유를 받아들인 후 교회에 들어왔다. 맨 위쪽: 프놈펜.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북 지방부 썬썬 지부 회장인 칸 사린은 십대 시절에 가족과 떨어져서 들판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

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 시기는 절망적이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칸 회장은 살아오는 동안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차례 보호해 주셨다는 점을 깨달았다. 칸 회장은

“선교사들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지요.”

열띤 공부와 토론을 마친 후에 로이 회장은 가족과 함께 2001년에 침례를 받았다.

“선교사들은 제가 몰몬경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었지만 그 책이 참되다는 간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몰몬경에 담긴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더 행복해지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하고 로이 회장은 말한다.

이런 경험이 로이 회장에게만 있는

칸 사린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빛을 받았어요.”

아래쪽: 최근에 완공된 이 집회소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부쩍 늘어난
 회원들을 수용한다. 맨 아래쪽: 피크
 싸레트와 아내 썹 타는 어렸을 때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기회를 감사하게 여긴다.

젊은 시절에 군에 입대했는데, 불과 6미터
 앞에서 적군이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칸
 회장을 비켜갔다. 또한 여러 번 지뢰를
 밟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지뢰
 하나가 터졌지만 심하게 부상을 입지
 않았다.

군인들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 몇몇 군인은
 문신이 안전하게 지켜 준다고 믿어서
 문신을 새겼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를 구해 준 것이
 문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실을 이제는 잘 압니다.” 하고 칸 회장은
 말한다.

아내인 썹은 쪽모가 선교사들을 만나
 침례를 받은 후, 칸 회장은 아내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며 감명을 받았다.
 함께 경전을 공부하자선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인 칸 회장은 이내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살아오면서
 여태껏 제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얻은
 간증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북 지방부 프놈펜
 제12지부 회원인 피크 싸레트도 매우 어린
 나이에 고난을 겪었다. 겨우 다섯 살밖에
 안 된 나이에 피크 형제는 가족과 떨어져서
 들판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어린 피크는
 이따금 게나 개구리를 잡아서 허기진 배를
 달래기도 했다.

피크 형제의 아내인 썹 타와 그녀의
 가족도 집에서 내쫓겼다. 당시에 썹
 타는 네 살밖에 안 된 아기였고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노동에
 동원되지는 않았다. 썹 타는 거의 하루
 종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노동을 할 수



로이 번씨크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서 맛본 기쁨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 성전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없어 남아 있던 할머니들에게서 보살핌을 받았다.

1995년에 선교사들을 만난 피크 형제 부부는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피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를 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피크 형제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자 아내도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다.

벽차 오르는 기쁨

침례를 받은 후, 피크 형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피크 가족은 매일 시간을 내어 경전을 읽는다. 그렇게 할 때마다 복음의 기쁨이 이 가족의 영혼에 스며들었다.

쌍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지금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낍니다. 좁은 길에 머물면서 계속 진보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 길에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로이 회장이 느끼는 기쁨은 조상에게는

물론이며 후손에게까지, 양방향으로 퍼져나간다. 로이 회장은 가족과 함께 2004년에 중국 홍콩 성전을 방문했다. 로이 회장의 아내와 자녀들이 로이 회장에게 인봉되었을 뿐 아니라 오래 전에 작별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구원 의식이 모두 수행되었다.

“성전에서 맛본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로이 회장의 말이다.

칸 회장도 홍콩 성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될 기회를 맞았다. 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서 받은 느낌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존에 필요한 자양분

복음이 전파된 덕분에 캄보디아



회원들은 생존에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 있는 후기 성도 교회는 이미 많이 성장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성장이 캄보디아 전역에 복음의 꽃이 만발할 미래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톤레사프 호가 넘쳐 흐를 때 물고기와 동물들이 풍부한 먹이를 얻는 것처럼, 회원들 마음 속에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서 영적 자양분을 받는 캄보디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냄비 뚜껑을 닫으면 끓어 넘치죠. 솟아오르는 제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그 느낌을 이야기해야만 해요.”

로이 회장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잔잔한 영향력이 딸들에게 미쳐서 딸들이 계속 복음 안에 거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로이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제 인생과 가족에 관한 모든 면이 더 좋아졌습니다. 가정에 있는 신권으로 가족이 단합하게 되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 둘러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19 94년은 캄보디아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해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지부 24개에서 활동하는 회원 8천여 명이 있다. 현재는 교회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와 같은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및 *Ensign*, 2009년 11월호, 6쪽)

캄보디아에는 오래된 건축물과 사찰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은 이곳 교회 회원들의 삶에 새로운 감각을 가져다 주었다.

앉아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1994년에 캄보디아 정부가 교회를 합법적으로 승인한 이후, 캄보디아인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피크 가족은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피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캄보디아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쌍 자매도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세요. 앞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성전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칸 회장은 구주에 대해 알고 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잘 안다. 칸 회장은 캄보디아인들을 과거의 시련에서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인도주의 봉사

후 기 성도 자선회는 기본 생필품과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가족 식량 생산

후기 성도 자선회는 농부들에게 화학비료와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유기비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몸에 더 좋은 쌀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돕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농부들에게 판매 목적이 아니라 자급자족에 필요한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쳤다.

휠체어

2009년 12월에 후기 성도 자선회는 프놈펜에 있는 국립 장애인 센터에 1,000대 이상의 휠체어를 기증했다. 휠체어가 필요한 캄보디아인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도 휠체어를 받았다.



피크 싸레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믿는다.

칸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받은 많은 고통을 잊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빛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요.” ■

배경: © GETTY IMAGES

식수

후기 성도 자선회는 캄보디아의 여러 마을에 비누와 정수 필터, 화장실 설비, 빗물받이 시스템, 수질 분석용 물자를 제공했다. 또한 수천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우물 파기 공사를 여러 차례 감독했다.



도와주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유학 온 이튿날 밤에는 친구들을 만나 중심가에서 미식축구를 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보기로 마음 먹었다. 러시아에서는 버스를 타 본 적이 없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께서 7번이나 1번 버스를 타면 집에 올 수 있다고 알려 주셨다. 7번 버스가 오자 나는 차에 올라탔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상점들과 인도에서 각기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점차 눈에 들어오는 거리가 생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고서야 버스를 탄 지 30분이나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연 버스가 멈춰 섰고 불이 꺼지더니 모든 사람이 내렸다. 겁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두리번거렸다. 지하철역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길 아래쪽에 있는 한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길을 잃었어요.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하철역은 여기에서 너무 멀어요. 하지만 저쪽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5번 버스를 타면 지하철역까지 가요.” 하고 남자가 말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급히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나 정류소에 도착한 버스는 5번이 아니라 1번 버스였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7번이나 1번 버스를 타면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라탔는데 또다시 버스는 하염없이 달렸다. 승객들은 한 명씩 모두 내리고 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기에,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역을 찾지 못한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형편이었다.

마침내 버스는 도로변에 멈춰 섰다.

버스 기사는 “내리세요. 여기가 마지막 정류소예요.” 하고 말했다.

나는 온 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달려가서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흔들어 보았다. 아무도 서지 않았다.

이내 다른 버스 정류장에 이르렀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다. 버스가 다가오면서 자동차 불빛이 정류장을 비추었다. 7번 버스였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내가 길을 잃은 건 그 버스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 뒤에서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버스 안으로 밀어 올렸다. 나는 버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0분이었다. 10분 뒤면 지하철이 끊길 시간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또다시 속삭이듯 기도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자 지하철역 불빛이 보였다. 버스는 그곳에서 정차했다. 나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고,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하철로 뛰어들어갔다.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앉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신의 참새를 헤아리시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마태복음 10:29~31 참조) 그러고는 조용히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 어두컴컴한 대도시의 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으로 인도해 주셨다.

■
티파니 루이스, 미국 텍사스





나는 초대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세미나리에서 성신이 임하지 않을 장소에는 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은 게 떠올랐다.

불행으로 초대받다

브라질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나는 열두 명을 부하로 거느리는 상병으로 뽑혔다. 불행히도 어린 병사 열두 명은 막사에서 표준이 가장 낮은 부류 같았다. 나는 그들이 마약, 절도, 성적 부도덕, 기타 중대한 죄에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병사들의 낮은 표준에 영향을 받는 대신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았다. 예를 들면 휴식 시간이나 함께 소총을 닦을 때 복음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내 표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하들은 귀를 기울였고, 나를 존경심으로 대했다. 그러나 복음 교리를 가르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태도나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

마침내 군대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끝이 났다. 군인으로서 보낸 마지막

날, 부하들은 나에게 작은 목장에서 함께 축하연을 열자고 했다.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상병님, 우리 파티에 꼭 오셔야 해요. 얼굴을 안 비치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부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초대를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문득 그들의 파티는 후기 성도 표준과 정반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미나리에서 성신이 임하지 않을 장소에는 가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은 게 떠올랐다. 부하들은 화를 냈지만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한 명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 송별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 파티는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는 것이 특색이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은 서로에게

술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들 중 한 명이 장난으로 동료에게 성냥을 던졌고, 그 동료는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파티에 참석한 모든 병사는 동료의 사망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파티에 참석했더라면 술은 마시지 않았을지라도 똑같은 곤경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미래에도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망한 청년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영의 속삭임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른 것이 무척 감사했다. ■

세사르 에이 미누티, 브라질



하 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계명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 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청소년 대회로 가는 동안 한 할머니에게 회복된 복음과 성전에 관한 나의 신앙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이었고 몇 가지 복음 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견해까지 갖고 계셨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하신 한 말씀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는 약 40년 전에 한 후기 성도 친구에게서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당시에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할머니의 친구는 “난 술을 마시면 안 돼.” 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따금” 술을 마시는 몇몇 후기 성도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바와는 반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강요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각자 그분께서 주신 건강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덕적 선택의지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에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계명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 짧은 만남에서 나는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항상 타인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떤 본보기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

토르스텐 코니그, 독일

텔레비전 꺼!

추수감사절이 끝난 토요일 밤, 나는 교외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한 채널에서 영화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영화가 시청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어때?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게다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당연히 편집됐겠지.'

그러나 영은 나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대신 책을 읽기로 했다.

30분쯤 지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로 정원희의 한 형제였다. 그 형제는 자신이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젊은 자매 한 사람이 아파서 축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형제는 30분 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온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신속히 안식일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아픈 자매의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나는 그 자매가 얼마나 아픈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자매와 같이 생활하는 다른 자매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고 빨리 와 달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 자매의 상태는 확실히 좋지 않았다. 열이 높았고 얼굴은 창백했다. 같이 생활하는 다른 자매는 통증이 몇 시간 전부터 있었고, 힘이 없었으며, 자꾸 토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형제는 나에게 축복을 해 달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결국 축복을 주기 위해 마음속으로 준비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을 인도해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기름 부음이 끝난 후에 내가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주었다. 내 입에서 건강이 회복되리라는 약속과 위안을 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 말은 참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렇게 축복을 마치고 눈을 떴다. 자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올랐고, 그녀는 축복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 자매는 곧 회복되어 다시 공부를 하고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에 큰 감사를 느낀다. 그 경험은 겨우 10분 정도였고, 그 자매는 분명히 그 일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

나는 영의 속삭임에 감사한다. 영은 나에게 유혹을 피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도록 속삭여 주었다. 또한 나는 영이 그 장로 정원희 형제를 나에게로 인도해 준 것에 감사를 느낀다.

무엇보다도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힘을 주셨고, 축복할 말을 인도해 주셨으며,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셨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영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
조나단 에이치 웨스토버, 미국 유타 주



영은 나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속삭였다. 30분쯤 지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생의 사명은 지금부터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더 큰 자신감과 힘과
신앙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청년 시절,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선교 사업과 결혼, 교육, 직업 모두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고, 그에 대한 답도 대부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사명이 무엇이건 그것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기꺼이 성취하고 싶었다.

축복사의 축복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태양계 지도를 들고 식품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틀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사명을 찾아 성취할 수 있을까?

그 후 나는 더 큰 자신감과 힘과 신앙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

1. 잠시 동안

첫 번째 원리는 현재가 소중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1831년, 많은 초기 성도들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7년 정도를 보냈다. 성도들은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집과 사업체, 농장을

남겨 두고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모험을 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커틀랜드는 잠시만 거주할 곳이라고 알려 주셨다.

“나 주가 달리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 곳에서 떠날 것을 명할 때까지, 나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이 땅을 성별하여 주노라.

그러나 그 시와 그 날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이 땅에서 활동할지니라. 이것이 돌이켜 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1:16~17)

나는 초기 성도들이 주님의 지시를 듣고 바로 일을 착수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 좋다.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도 논밭을 갈아 일구었고, 열매를 따먹지 못할 수도 있는 나무를 심었으며, 결국에는 그곳을 떠날 것이면서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했다.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응시하며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또 언제 가게 될지 궁금해 하지 않고, 분주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행동했다.

1838년에 오하이오를 떠날 때까지



커틀랜드 초기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고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행동했다.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행동할 때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성도들은 미래에 이곳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 그 소중한 생산적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찰해 보자.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학교를 설립했고, 영감에 따라 성경 번역을 마쳤으며, 중요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
-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이 조직되었다.
- 커틀랜드 성전이 건립되고 헌납되었다. 이곳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로부터 신권 열쇠를 받았다.

- 첫 번째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파견되었다.

나의 청년 시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신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청년 시절은 육체적인 힘과 지적인 힘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 해 동안 있을 것같이” 행동하겠다고 결심할 때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절은 엄청난 생산과 성장, 배움과 봉사를 낳는 성별된 기간이 될 수 있다.

2. 매일의 사명

두 번째로 유용한 원리는 단순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내 인생의 사명은 막연하고 먼 미래에 있는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나의 사명은 매일 진행되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교회에서 사명을 띠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상에 살아 있는 한 그 사명은 지속될 것입니다.”¹ 달리 말해 내 인생의 사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은 찾기보다는 깨달아야 하는 문제였다.

나는 이미 내 삶의 일부였던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아냈다.

- 각자가 받은 독특한 은사.
- 각자가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
- 주님께서 내가 참여하길 바라시는 세상의 일.

다시 말해서 이 세 요소가 교차하고, 그에 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원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자.(창세기 37~47장 참조)

요셉은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아브라함의 성약을 이어받을 상속자였다. 또한 꿈을 해석하는 영적 은사도 받았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닥쳐왔다 그 중에는 편애하는 아버지, 질투심 많은 형들, 형들을 상대할 때 재치 있게 행동하지 못한 점도 포함되는 것 같다. 요셉은 어리고 미숙한 나이에 노예가 되어 외국으로 팔려갔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도전을 활용하여 자신이 살던 세상의 특정한 필요 사항에 기꺼이 응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를 포함해서 몇

차례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를 위해 일할 기회가 열렸고, 애굽 백성을 위해 식량 저장 정책을 지휘하게 되었다. 요셉이 임무에 충실하고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면하는 도전이 결합되어,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으며, 충실하게 행동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과 애굽 백성과 가족에게 봉사하는 독특한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세 요소가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서만 교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매일 교차하고 있다.

글을 쓰는 은사를 받은 한 젊은 여성은 예전에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십대인 여동생이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 그녀는 2주 동안 쉬지 않고 여동생에게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훌륭한 글을 매일 하나씩 써주었다. 동생에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이 작은 선택으로 그녀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행했다.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선택을 매일, 매주, 매년 계속할 때 커다란 틀이 형성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점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된다.



애굽의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도전과 충실함 때문에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독특한 사명을 이행해냈다. 이 세 요소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교차하고 있다.

3.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20대를 지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오래 전에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내 삶이 펼쳐졌음을 깨닫는다. 확실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대체로 나는 그런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살아오는 동안 이따금 우여곡절과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올바른 행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주님께서 항상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디로 가기를 바라시는지 알고 계셨다. 나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에게 봉사하고, 영에 귀를 기울이려고 늘 최선을 다했다. 종종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손길이 늘 내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지금은 깨달아 알고 있다.

청년 시절은 중대한 결정과 그 시기 특유의 불확실함과 압박감으로 가득 찬 시기이다. 그러나 목적하시는 바를 매일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신감은 더 커진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시편 46:10) 더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화평을 얻는다. ■

주

1.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July 3, 1867, 201.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 러 지역에 있는 교회 청년 성인들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2009년 5월 노변의 모임에서 하신 “사물을 있는 그대로”라는 말씀(이반 호 22쪽 참조)에 응하여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기타 과학기술을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그 중 몇 사람이 어떤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소개한다.

집중해야 해야 합니다

휴대용 음악 기기와 같은 일부 과학기술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베드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일이 재미있지만 그것에 종속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저는 압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하게 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앤드류 호베이, 미국 매사추세츠

돈독한 관계

베드나 장로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때때로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심지어 무시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과학기술 오용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영에 주파수를 맞추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휴대전화에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와 같은 간편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지만 다른 기능들은 대체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더 중요한 일에 주의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저는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가족과 친구들을 직접 방문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자영, 한국 서울

나 자신에게 다짐하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해 본 후, 저는 일부 과학기술이 일상 생활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사고망을 구축하기보다는 학문을 쌓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양서를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정을 쌓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루스 바릴레아, 필리핀 마닐라

과학기술이라는 밋

저는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자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늘 제 일상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비디오 게임, 전자매체와 전자기기 등 이 모든 것이 유익한 오락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쉽사리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밋에 빠져 유익하지 못한 것에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베드나 장로님께서 전해 주신 영감 어린 말씀을 듣고서 저는 항상 과학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크리스티안 알레한드로 제르린, 니카라과 마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묶이어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경 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는가? 어떻게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많은 후기 성도 십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베를린 스테이크 다렘 워드 청녀들도 매일 아침 학교로 가기 전에 세미나리에서 참석하여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경전과 관련된 여러 경험은 청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나눌 준비가 되었으며, 또한 기꺼이 나누려 한다.

경전에서 얻는 답

경전에 관해 청녀들이 겪은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것이다.

사리아 그루세(16세)는 경전을 공부할 때 이따금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이 그 장에서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 그 성구를 다시 찾아볼 때에는 그때처럼 성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제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

것은 구절과 함께 떠올린 생각과 그때 느낀 영이기 때문이죠.”

데니세 라이네르(16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데니세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경전을 펼치자 바로 그 장에 답이 있었다고 한다. 데니세는 그때 큰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을 때 좀 더 인도 받고,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을 정말로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경전으로 단합하여

경전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성도로서 단합하게 한다고 청녀들은 믿는다. “복음은 경전 안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 논쟁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돼요. 원리는 경전 안에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는 단합할 수 있지요.” 엘리자베스 클라크(16세) 자매의 말이다.

사리아도 엘리자베스와 같은 생각이다.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경전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아요. 동일한 가르침과 믿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집에

독일 베를린에서 세미나리를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경전에 관한 견해들을 나눈다.



레슬레이가 좋아하는 성구

고린도전서 13:3~8. “제가 이 성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요한 속성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데니세가 좋아하는 성구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이 디모데를 편지로 위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그와 나누는 아름다운 성구예요. 저는 이것이 경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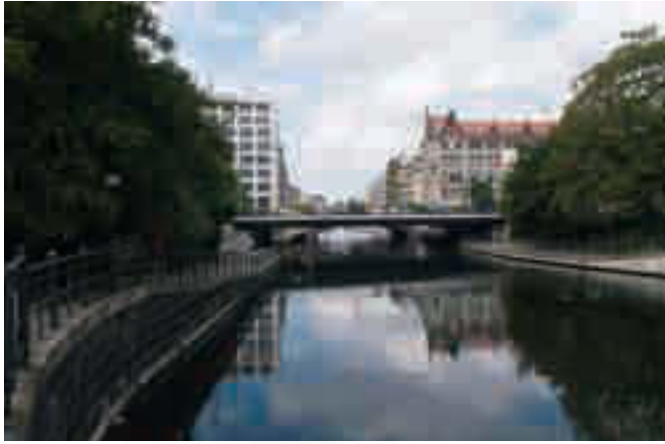


사진 촬영: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벨도 푸시 제외;
프린팅: 로크론 사진; © GETTY IMAGES



혼잡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세미나리 학생들은 경전이 발휘하는
힘이 무엇인지 배웠다.



있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라 클라크(17세)는 물론경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경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경과 다른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다면 단합할 수 있고, 또 단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단합할 때 영을 동반하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따르면 복음을 배울 때 영을 느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영을 전혀 느낄 수 없죠.”

세미나리에서 이해력을 넓히다

청녀들은 경전을 더 잘 이해하려면 세미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데니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세미나리에서 경전 속 인물들과 역사 배경 전반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워요.”

레슬레이 레이네르(17세)는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는 제 삶의 일부예요. 저는 세미나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세미나리에 모여서 함께 공부해야 해요.”

사라도 한 마디 덧붙인다. “저는 아침마다 경전 공부를 하는 세미나리 시간이 항상 기다려져요. 제 간증은 강화되었어요. 세미나리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리아에게 세미나리 시간은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곳이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세미나리 교사이신데다 예전에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사리아는 그런 걱정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세미나리 시간이 복음에 관한 질문과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안전한 장소이자 버팀목이라는 점을 안다.

경전이 발휘하는 힘

경전은 매우 실질적으로 청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청녀들은 경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보았다.

예를 들면, 경전 공부는 청녀들이 스스로 궁금해 하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한다. “경전과 그 안에 담긴 원리들을 이해한다면, 누군가가 복음에 관해 질문해 올 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한 데니세는 경전을 통해 힘과 격려를 받았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돼요. 경전에서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에 관해 읽어 본다면, 충실함에 대한 보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걸 아는 것도 좋은 거예요.”

경전이 삶에 미친 영향 때문에 청녀들은 이제 자신이 더 큰 이해와 간증으로 이어진 길 위에 서 있음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후기 성도들이 단합하여 결합되어 있다고 느낀다. ■



사리아가 좋아하는 성구

교리와 성약 14:7.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영생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구가 마음에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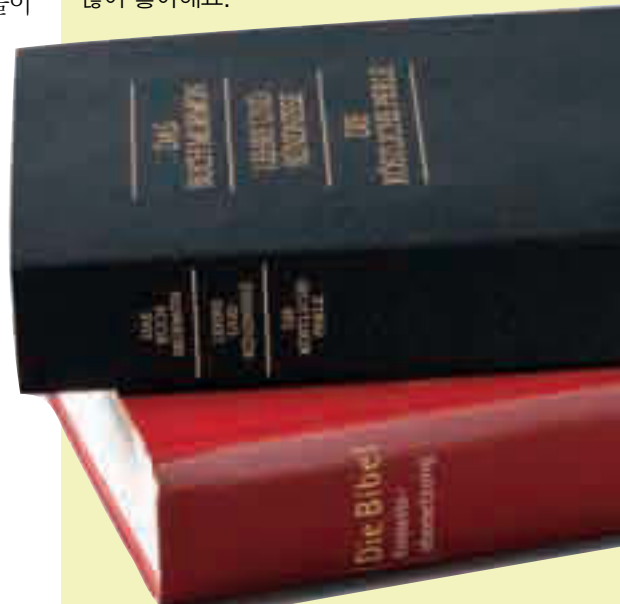
사라가 좋아하는 성구

고린도전서 10:13. “이건 정말로 훌륭한 약속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어떤 유혹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는 성구

교리와 성약 84:88.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거기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위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구를 아주 많이 좋아해요.”



준비가 되었나요?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적군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입니다.(에베소서 6:11~18 참조)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셰리 앤 데 라 크루스

열 일곱 살에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2학년이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필리핀에서는 열여섯 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끝없이 쪽지시험을 보고, 연구를 하고, 과제물을 읽느라 몸과 마음이 몹시도 지쳐 있었다. 잠이 부족한 탓에 늘 눈 밑에 그늘이 저 있는 듯 했다. 공부가 힘들었지만 나는 항상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라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고, 공부는 제쳐둔 채 실컷 자고 싶을 때마다 다음날 쪽지시험을 망치거나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좌절하고 슬퍼할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자지 않고 공부하는 데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

많은 학과 친구들은 쪽지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종종 시험을 볼 때 서로에게 답을 알려 주거나 교수님이 지켜보지 않는 틈을 타서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물을 보게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서로를 “도왔다.” 나도 종종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교회 잡지에서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사를 수없이 읽어 왔다. 물론 높은 표준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며 유혹에 저항했다. 그 말은 다른 학생들이 서로를 돕기 때문에 때때로 내 성적이 친구들보다 낮게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가 있었는데 각 시간마다 쪽지시험을 보았다. 겨우 첫 번째 쪽지시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책에서 열 장 분량을 공부해야 했다. ‘어떻게 모든 시험을 다 치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첫 번째 쪽지시험은 잘 치렀다. 점심시간에는 다음 시험 공부를 했다. 그리고 강의실로 들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모두 다 아는

문제였다. 딱 한 문제만 제외하고 말이다. 나는 마음 속으로 외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답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

화가 치밀어서 펜으로 의자를 콕콕콕 두드렸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재빠르게 눈을 굴려서 친구 답을 훑쳐보면 되겠다! ‘이번 한 번만

쪽지시험 문제에서 딱 하나만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너무나 쉽게 눈을 돌려서 친구 답을 훑쳐볼 수도 있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돼. 딱 한 번만 하는 거니까 해가 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열심히 공부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친구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건 정말 불공평하잖아!’ 그렇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나는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뭘 선택할지 고민했다. 친구 답을 훑쳐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안돼, 세리! 부정행위는 나쁜 일이야. 너도 알잖니!” 돌연 나는 깨달았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부정행위를 해서 얻은 점수라면 기분이 좋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게 바로 진짜 시험이다.

바로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구가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세기 39:9)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쪽지시험과 학교 과제물 등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셨다. 어떻게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죄를 택할 수 있겠는가?

그 쪽지시험의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문제의 답이 떠올랐는지 안 떠올랐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 하지만 늘 기억하는 것은 옳은 선택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점이다.

이제 3학년이 된 나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과제와 동일한 유혹에 직면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로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엘마서 41:10 참조) 진정한 행복은 계명을 지키고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를 때 온다. 나는 “계명을 지키면 …… 안전과 평화 있네”²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 ■

주
1.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2. “계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우리들 공간

내가 좋아하는 성구

니파이전서 3장 7절

저는 이 성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성구는 우리가 자신감을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우리 곁에 계시리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

리비오 데 로사, 이탈리아



복음을 나누는 일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일은 위대하고도 놀랍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나누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나누세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복음을 나누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길을 잃고 쇠막대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

로즈 앤 폴린턴, 필리핀



김민서 원화

복음을 배우며

어릴 때 우리 다섯 남매는 아담한 집에서 선하고 훌륭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했다. 부모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줄 만한 경제력은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어 하셨다. 그분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다.

좀 더 자라난 후에 나는 조국인 키리바시에 있는 교회 학교에 다니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아빠는 나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가족 부양을 도우라고 권하셨다. 얼마간 교회 학교를 다닌 후 나는 침례를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되어 내가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물몬경을 읽는 것이었다. 물몬경을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간증이 강화되었다.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셉 스미스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믿음을 가족과 나누었고, 몇 년 후에 엄마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침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인생을 바꿔 놓았으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소망을 품게 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며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린다. ■

네테티 티 라바우아, 키리바시

이제 겁나지 않아요

우리는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활동으로 선교사에게 소개할 사람을 찾기 위해 소책자를 나누어 줄 계획이었다. 나는 그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고 있었는데 활동이 시작되자 그 책을 원래 놓여 있던 탁자에 내려 놓았다. 그런데 문득 그 책자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자를 집어서 경전 사이에 끼워 두었다.

우리 모두는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다. 소책자를 하나 건네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주머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셨다. 특히 아들 하나가 마약과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몇 분이 지난 후, 경전을 펼치는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가 보였다. 아주머니의 아들 이야기가 생각났다. 다시 그 집에 가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겁이 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아직도 바깥에 계셨다. 나는 다가가서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고는 우리 청소년들이 따르는 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아들과 함께 읽어보라며 소책자를 건네드렸다.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아들을 밖으로 불러내셨다. 우리는 두 사람이 선교사들과 만나도록 약속을 잡았다.

선교사가 된 기분이었다! 그 청남을 가르치고

도움을 준 일은 정말 훌륭한 기회였다. 그 소책자를 가지고 가라고 알려주신 분이 성신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

보리스 안투네스, 칠레



장거리 가정의 밤

루이스 펠리페 비에라-메소네스

우 리 가족은 꼬박꼬박 가정의 밤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종 직장일로 장기간 출장을 가셨다. 그 말은 이따금 가정의 밤을 하는 날에도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계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버지가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시자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말했다. “인터넷으로 아빠와 함께 가정의 밤을 하는 건 어때요?”

그때 이후로 가정의 밤을 하는 날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인터넷에 접속한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목소리를 듣는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인터넷과 컴퓨터 덕분에 아버지도 가정의 밤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표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과를 하실 차례에도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 있는 전통 중 하나는 매주 각자의 목표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전통도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가족이 함께 물문경을 읽는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가족과 물문경을 읽으며, 이제 읽지 못할 핑계거리도 없어졌다.

아버지는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연락을 계속 취하신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말했다.
“인터넷으로 아빠와 함께 가정의 밤을 하는 건 어때요?”*

페루에 있는 우리 집에서 멀리 떠나 계실 때면 아버지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신다. 아버지가 여행 중이시더라도 접견이나 가족 평의회를 할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진다.

오용이나 해로운 영향을 두려워하여 선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유익하고 유용한 과학기술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을 현명하고 겸손하게 이용하면 무척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인터넷을 매우 고맙게 여긴다. 우리 가족을 떨어져 있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으니 말이다. ■

넌 이미 알고 있어

나는 교회가 참되다고 믿었다. 그런데 나는 그 증거를 언제 얻었을까?

엘리자베스 스티트

어느 날 학교에서 반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종교에 관한 화제로 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는 약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내 믿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그 교회를 믿는 이유는 너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를 그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이야. 안 그랬다면 넌 믿지 않았을 걸.”

그때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친구가 한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이나 교리에 한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어린 아이일 때부터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고 느꼈다. 내가 침례를 받기 전에도 우리 가족은 물론경을 함께 읽었고,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았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그 간증을 얻었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이따금 나를 괴롭혔다. 기도를 했는데 즉시 응답이 왔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간증이 확인된 순간이 언제인지는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난 후 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 유적지로 여행을 갔다. 성스러운 숲에 도착하자 안내자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고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확신을 구해 보라고 권유했다. 나는 숲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 첫번째 시현에 관한 기록을 읽었다. 그런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나는 첫번째 시현이 일어났다는 것과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런데도 다시 한 번

물어보았다. 기도를 마쳤을 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단한 느낌도, 시현도, 천사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바위에 앉아 축복사의 축복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축복문에는 복음의 회복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이런 말이 맴돌았다. “넌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다고.”

내 믿음에 친구가 이의를 제기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설명할 방법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분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내게 가르치셨을 때, 내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만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친구에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 성스러운 숲에 갈 필요는 없었다.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 거창한 경험을 할 필요는 없었다. “넌 이미 알고 있어.” 이 말만 항상 기억하면 된다. ■

이 주제에 관한 자료를 더 보고 싶다면, www.conference.lds.org에서 닐 엘 앤더슨 장로가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를 참조한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극적인 경험을 하여 간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로 간증은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서서히 옵니다. 강력한 영적 증거를 받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믿고자 하는 바람(엘마서 32:27 참조)을 가짐으로써 간증을 얻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간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교리와 성약 88:68 참조)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간증을 얻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가슴…… 속에서 뜨거움”(교리와 성약 9:8 참조)을 느낍니다. 성신이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말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2 참조) 여러분도 작고 세미한 영의 음성으로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간증을 얻는 강력한 방법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가르칠 때, 영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참되다고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진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면 합당해지고, 성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간증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도 간증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경에서 벗어나 지금과 같은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을 느끼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든 게 헛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니다. 항상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간절히 찾고 있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터블루프, 15세, 미국 네바다 주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로 여러분의 질문을 그분 앞에 가져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저는 진실로 압니다. 인내하고 계속해서 충실하십시오.

새론 에프, 20세, 나이지리아 라고스

성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옵니다. 신앙으로 구하고, 겸손하며, 계명을 지키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시간을 내어 경전을 상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애나 매 알, 20세, 필리핀 다바오 오리엔탈

간증을 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구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확고한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도 간증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간증을 얻기 위해 여러 번 기도했지만 제가 구하던 증거는 복음과 회복에 대한 간증을 나뉘는 때에야 비로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확고한 간증을 얻지는 못했지만, 저는 성신으로부터

분명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간증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점을 저는 압니다.

아우라 오, 18세, 콜롬비아 후일라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금식은 여러분의 간증이 자라날 영적인 토양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은 여러분이 모든 시련과 유혹에

저항하도록 힘이 되고 닳아질 것입니다. 간증은 일관성 있게 행할 때 얻습니다. 근면하면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가 그랬듯이 여러 번 금식해야 합니다.(앨마서 5:45~46 참조) 처음에는 간증이 작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면 어느새 신앙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주비에타 장로, 20세, 콜롬비아 칼리 선교부

신성한 계시

새로운 개종자인 저는 성전에 가서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 위해 물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참으로 신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간증이 쌓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간증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신성한 계시입니다. 간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간증의 뿌리는 의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은 우리 시대에 전개되는 주님의 사업을 증거해 줄 수 없습니다.

마리암 앤, 19세, 가나 아크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증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간증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다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보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월벤 지, 18세, 필리핀 밴구에트

인내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기도 합니다. 응답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따라 올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자질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계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또한 성령의 속삭임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응답은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치오마 오, 15세, 나이지리아 아버지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따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제 생각에 간증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경전을 읽을 때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모니카 앤, 19세, 페루 리마



열렬한 간증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으로 간증을 구해서는 안 되며, 간증이 즉시 주어질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

복음 원리에 대해 여러분이 배우는 진리를 연구하고 상고하십시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하며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것들과 관련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게 될 모든 진리는 결과적으로 서로 어우러져 뜨겁고 확실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20쪽.

다음 호 질문

“제가 겪는 시련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주시는 경고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0년 7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7/10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여러분의 전자통신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친구들이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근사한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있나요?

1 방금 할머니께서 보내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감사편지를 쓰라고 하시지만 편지 대신 이메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 ㄱ. 할머니께 이메일을 보낸다.
- ㄴ. 할머니께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다.

2 메리가 여러분에게 생일잔치에 초대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절친한 친구 사라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ㄱ. 사라에게 이메일을 보내 생일잔치를 알려준다.
- ㄴ. 이메일 내용을 나만 알고 있다.

3 가정의 밤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과가 시작될 때까지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 ㄱ. 가족들이 개회 찬송을 부르는 동안 컴퓨터 게임을 마친다.
- ㄴ. 컴퓨터를 끄고 가족과 함께 개회 찬송을 부른다.

4 부모님께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라며 새 휴대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 ㄱ. 새 휴대전화를 자랑하기 위해 짧게 전화 몇 통을 건다.
- ㄴ.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잘 보관한다.

5 친구 크리스티나는 여러분과 축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친구 제이콥과 메신저(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 받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 ㄱ. 크리스티나에게 내일 축구를 하자고 말하고 제이콥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
- ㄴ. 제이콥에게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크리스티나와 축구를 한다.



예절은 어떤가요?



1 이메일은 빠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감사편지를 써 보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선물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한 친구가 보낸 이메일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는 것은 비밀을 폭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ارا가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기분 상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컴퓨터 게임은 재미있지만 가정의 밤은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개회 찬송을 부르고 컴퓨터 게임은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하세요.

4 부모님이 긴급한 상황에 쓰러며 휴대전화를 사 주셨다면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자랑하면 친구들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5 곁에 없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눈 앞에 있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친구와 서로 마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

질문 중에 7으로 답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읽어 보고 전자통신 예절을 개선해 보세요.



자메이카 박자에

메건 워더즈

이 곳은 자메이카 킹스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면 사무엘(10세)과 기오데이네(7세)가 바깥에서 두 형제들과 함께 짱충짱충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땀뽀기를 하면서 박자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 1, 2, 3, 온티 루루,
- 4, 5, 6, 온티 루루,
- 7, 8, 9, 온티 루루,
- 10, 온티 루루,
- 10, 온티 루루.



사무엘과 기오데이네는 재주가 많은 행복한 아이들이다. 운동경기도 즐겨 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며, 집안일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환한 웃음과 유쾌한 태도로 모범을 보인다.

학교 가는 날

자메이카에 있는 학교에는 해마다 소년의 날과 소녀의 날이 있다. 소녀의 날에는 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대신 소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소녀들은 재능발표회를 하고, 철자경연대회와 재미있는 여러 활동을 즐긴다.

기오데이네는 반 대표로 철자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제가 쓰기 좋아하는 단어는 환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소년의 날에 소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간다. 사무엘은 글짓기대회에 참가했는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주제로 글을 써서 1등을 차지했다.

맞춰 강충강충 뛰기

성전 방문

사무엘은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자메이카에 사는 많은 가족들에게 성전 방문은 커다란 희생이 필요한 일이다. 자메이카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이다.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사무엘과 기오데이네의 가족은 성전에 갈 수 있었다. 사무엘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뉴욕에 계시는 고모 댁에 간 적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낸 휴가 중에 그때가 최고였죠. 우리는 그때 맨해튼 성전을 보았어요. 제가 실제로 본 유일한 성전이죠.”

2008년,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이 운영을 시작하자 온 가족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에 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었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자메이카 회원들은 파나마시티 성전으로 간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다. “열두 살이 되어 성전에 가면 정말 신날 거예요.”



두 위대한 교사

사무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사무엘은 제일 좋아하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그런 오빠를 존경하는 기오데이네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무엘과 기오데이네는 친구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회 회원은 몇 명 없다.

사무엘은 말한다. “아이들이 싸움 같은 나쁜 행동을 하면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해 줘요.”

사무엘과 기오데이네는 간증을 나누는 일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회장은 말씀을 하기로 한 어린이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사무엘과 기오데이네에게 말씀을 부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사무엘과 기오데이네는 말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요일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

사무엘과 기오데이네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충실히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기오데이네는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 신앙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



기도에 대한 응답

한번은 아버지의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때 기오데이네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도록 가족들을 격려했다. “기오데이네는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그 아이는 항상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상기시켜 줘요.” 하고 어머니는 말한다. 가족이 기도를 드린 덕분에 아버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기오데이네는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어린 시절에 저는 독일 츠빅кау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친구인 에빅 자매님은 새하얀 머리가 마치 물결처럼 곱슬거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에빅 자매님은 할머니를 교회로 초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교회로 갔고, 많은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음악, 특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더러 세상 빛 되라”라는 노래는 참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그분께서 바라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르며 얻은 구주에 대한 간증을 좋아합니다.

당시에 여섯 살이었던 저를 제외하고 저희 가족은 모두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공공 수영장에서 아버지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열한 살 때 우리 가족은 동독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독의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지부에 참석했는데 츠빅кау에 있던 지부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집회소는 작았으며 우리는 지하실에서 공과를 배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스트링햄 장로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제게 값진 진주를 가르쳤는데,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모세서 1:3~4 참조) 스트링햄 장로는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라는 성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구는 어두운 독일의 미래 앞에서 제게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건물들이 폭격을 맞아서 프랑크푸르트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제가 주님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에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여섯 살이든 아홉 살이든 열한 살이든 열아홉 살이든 또는 저처럼 예순아홉 살이든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친구가 친구에게”,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2~4쪽에서 발췌함.

주
1. “나더러 세상 빛 되라”, 어린이 노래책, 38쪽.

특별한 선교사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처럼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교회의 첫 번째 회원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 회원이 된 가족을 누가 가르쳤는지 알아보세요. 아래 질문에 최대한 많은 답을 적어보세요.

가족 중 첫 번째 교회 회원:

교회에 가입한 시기:

교회에 가입한 지역:

교회에 대해 알게 되고 간증을 얻게 된 과정: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빛 되기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나더러 세상 빛 되라”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감사편지를 쓸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 해 그림 위에 얇은 종이를 한 장 올려 놓고 그대로 따라 그린 다음 오려 내세요.
2. 해의 한쪽 면에 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좋아하는 색깔로 해를 색칠하세요.
3. 다른 한쪽 면에 그 가족이 여러분을 위해 해 준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쓰세요.
4. 그 사람을 위해 이부자리 정리를 해 준다든지 옷을 깎아준다든지 친절한 행동을 몰래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해 모양의 감사편지를 놓아 두세요.

성신은 모든 진리를 증거해요

샌드라 태너, 크리스티나 프랜코

물 문경에서 우리는 리하이 가족에 관한 기사를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땅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살도록 리하이 가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리하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리키네!”(니파이전서 16:10) 둥근 공에는 지침 두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리아호나라 불렀습니다. 니파이는 리아호나가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작동”(니파이전서 16:28)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하이 가족은 리아호나라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굉장한 선물, 즉 은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리아호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신을 따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

2010년 6월 경전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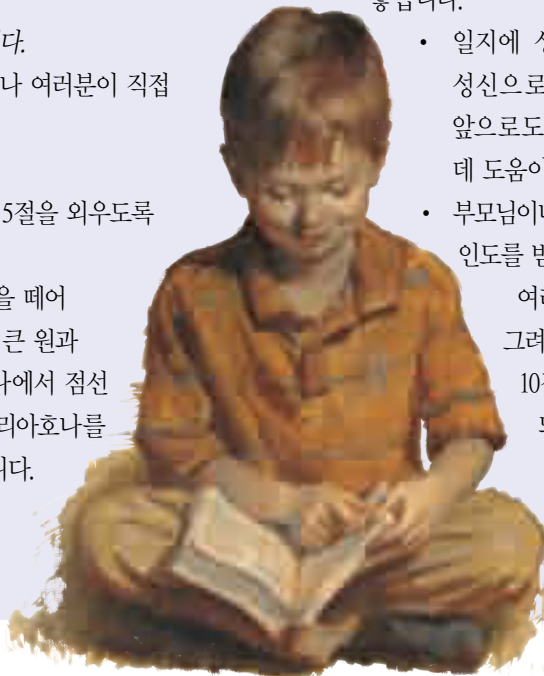
모로나이서 10장 5절을 읽습니다.
성신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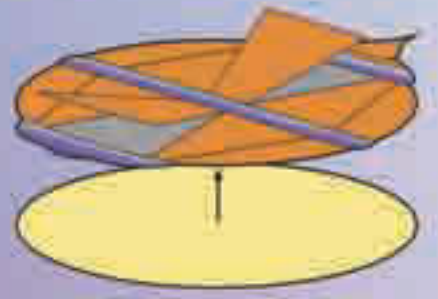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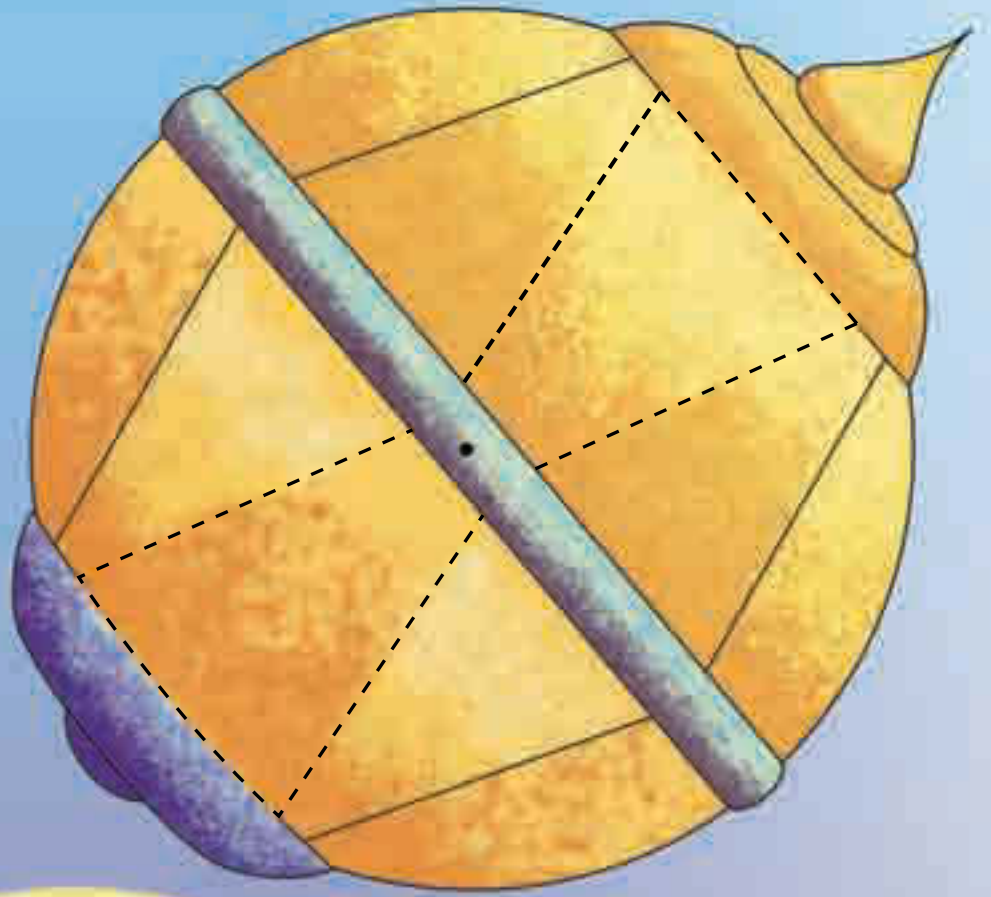
모로나이서 10장 5절을 외웁니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 다른 사람이 모로나이서 10장 5절을 외우도록 돕습니다.
- 65쪽에 나오는 리아호나 활동을 떼어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입니다. 큰 원과 리아호나라를 오려 내고 리아호나라에서 점선 부분을 자릅니다. 큰 원 위에 리아호나라를 올려 놓고 활핀으로 고정시킵니다.

오려 낸 부분에 있는 질문을 읽고 반대편에 나와 있는 성구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을 경전 일지에 적어도 좋습니다.

- 일지에 성신을 느꼈던 경험을 적습니다. 과거에 성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앞으로도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성신의 인도를 받은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일지에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여러분이 한 일은 모로나이서 10장 5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





우리들 이야기



제네시스 엠, 7세, 코스타리카



어느 날 오후, 저는 여동생 카밀리아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잔디를 깎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도와드리자고 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였지만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아빠와 함께 이웃에 사는 할머니께 잔디 깎는 기계를 돌려드리러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신 아빠는 할머니의 잔디도 깎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동생과 저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잔디를 깎는 동안 우리는 풀을 뽑아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치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와 카밀리아가 내 딸을 말끔히 치워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예쁘기도 하지, 다른 사람을 도움 줄도 알고 말이야." 그러고는 우리에게 사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척 행복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탕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캐롤라이나 피, 9세, 아르헨티나



인도 방갈로르 지방부 첸나이 제2지부 초등회 어린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성찬식 발표를 준비합니다.



캄보디아에 사는 일곱 살 난 느곡 후옌 디는 모로나이 대장과 자유의 기치(앨마서 46장 참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느곡에게는 형제자매가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느곡은 풍선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색 아레 사진 촬영: 리샤논 엠 폴나: 기몬테 삽화: 이범본: 오른쪽 삽화: 필리스 루호. © 1993 IR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우리는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일렬로 줄을 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 성전 보고 싶어”(어린이 노래책, 99쪽)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부르는 그 노래 정말 아름답다. 어디에 나오는 노래야?”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노래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녀. 내겐 신앙이 있어.” 그 이후에 그 아이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노에미 디, 12세, 프랑스



투안 안 피, 11세, 캄보디아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써 주세요. 우편물로 보낼 때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시고, 제출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의 그림자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교리와 성약 50:41)

패트리샤 알 존스
실화에 근거함

“**엄**마, 무서워요!” 하고 데지레가 소리쳤습니다. 데지레의 방문 앞으로 달려온 엄마가 침실 등을 켜셨습니다. 데지레는 무서운 그림자가 있던 방 모퉁이를 실눈을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기 구석에서 늑대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데지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데지레를 꼭 안아 주셨습니다. 데지레가 포근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말입니다. “불을 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데지레의 기분이 나아지자 엄마는 불을 끄고

잠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데지레는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눈을 뜨고 다시 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림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데지레는“엄마!” 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켜는 엄마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데지레, 아까 텔레비전에서 본 게 생각나서 그러니?” 하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데지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지레는 그 날 텔레비전에서 늑대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데지레의 침대 위에 걸터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는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제가 본 늑대 이야기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데지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나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말이야. 오늘밤에 네가 본 것이 네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걸.”

데지레는 엄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어떤 걸 볼지 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겠어요.” 데지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데지레.”

“하지만 오늘밤은 어찌죠? 아직도 무서운데.”

엄마는 “이렇게 해 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데지레의 책상에 놓아 둔 액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데지레가 무서운 그림자를 보았던 벽 위에 예수님 사진을 예쁘게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데지레, 예수님이 항상 너를 위해 그곳에 계실 거야. 무서울 때는 그것을 기억하면 돼.”

엄마가 불을 끄자 데지레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데지레는 엄마가 해 준 말씀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데지레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시고, 두려움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8쪽,

그분은 듣고 계시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으니”(모사이야서 27:14)

앨리슨 그레이엄 잉글랜드
실화에 근거함



1.

준비됐는걸요.

데번,
기도할 시간이야.
준비해야지.



2.

데번은 장난감 트럭을 내려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제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에게 귀가 있나요?

그럼, 네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두 귀로 주의 깊게 들으신단다.



4.

데번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몇 초 동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요. 정말로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개 우리 귀보다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해 주신단다. 성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5.

데번, 뭔가를 나누어 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럼,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어떠니? 장난감을 던져버린다고 할 때 말이야.

기분이 나빠요.

성신은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 주신단다.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지.

7.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듣고 계시는 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 주시려고 그분은 따뜻하고 좋은 느낌을 보내신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 할머니께서 신권 축복을 받고 건강이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을 기억하니?

6.

네,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셔서 기뻐요.

데번은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8.

부모에게 전하는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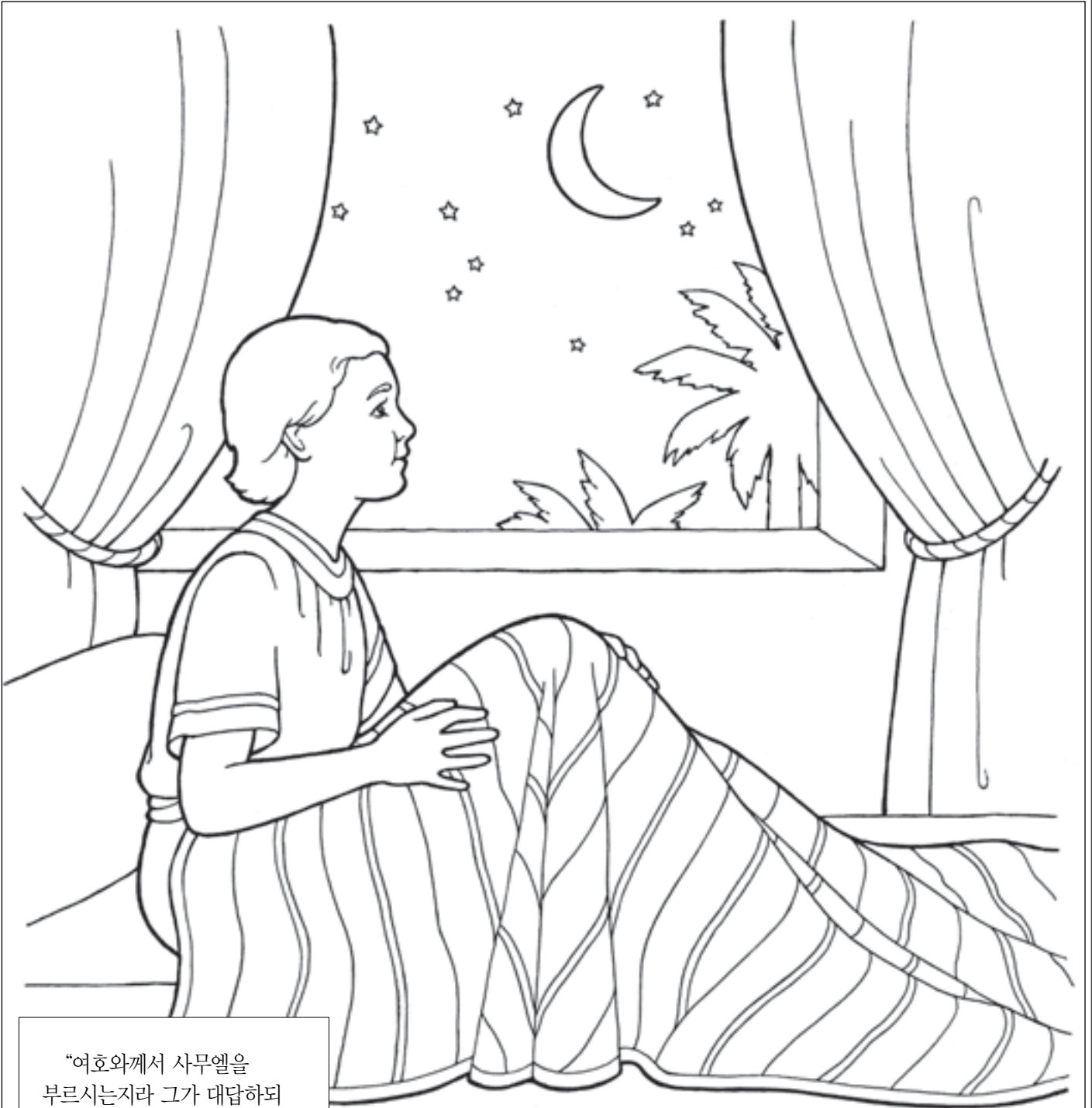
-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로 가서 자녀와 함께 “그분은 듣고 계시답니다”를 읽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경험을 하나 나눈다. 기분이 어땠는지도 이야기해 준다.
- “그분은 듣고 계시답니다”에 나오는 데번의 엄마처럼, 자녀가 성신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한다. 가능하다면 자녀가 최근에 경험한 일에 바탕을 두고 질문해 본다.
- 자녀가 ‘기도 준비하기’ 활동을 끝내면, 다음 번에 기도할 때 이 내용을 활용하여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도록 도와준다.

기도할 준비하기

데번은 기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기도할 준비를 하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기도할 준비를 하지 않은 그림에는 X표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4)

교회 소식

팀 정신이 축구팀과 정원회 회원들을 결속시켜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올 여름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멋진 소식 하나는 축구 이야기이다. 월드컵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축구팀들이 이번 달 동안 남아프리카에서 월드컵 우승을 꿈꾸며 경기를 펼치고 있다. 선수들은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 동료와 코치, 팬들을 서로 믿고 신뢰할 것이다. 각국 선수들과 팬들은 강한 팀 정신을 발휘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소웨토 스테이크 카기소 와드 제사 정원회만큼 동료와 코치, 팬들에게 혼신을 다하는 선수들은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월드컵에 출전하는 팀은 아니지만 말이다. 약 1년 전, 이 청남들 중 여섯 명이 신회원인 축구 코치에게서 교회를 소개받았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팀”인 제사 정원회에서 주전이

되어 매일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코치”인 감독과 함께 일한다.

현명한 솔로몬 코치

대부분의 남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스물아홉 살 된 솔로몬 엘리야 투매인도 축구를 사랑한다. 솔로몬은 매주 허리케인 축구팀을 코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솔로몬 형제는 선수들을 사랑하며 선수들이 성취해내는 일에 기뻐한다. 선수들 역시 솔로몬 코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솔로몬 코치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을 때 선수들은 호기심을 느꼈다.

“코치님은 종교 교육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연습하러 오셨어요.” 맥도널드 시야부레라 마나카냐카(17세)가 하는 말이다. “코치님 가방에 들어 있는 경전과 교회 잡지들이 우리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쭙었는데, 그분은 대답 대신 그 책들을 읽어 주셨어요.” 하고 파펠로 벤자민 세시니(17세)가 전한다.

솔로몬 코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에게 ‘경전을 읽으면 축구를 잘하게 돼.’ 하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경전을 읽더군요. 아이들은 경전 읽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저를 정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찍 연습을 마치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를 깨우더니 ‘코치님, 코치님 교회에 가봐야겠어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허락을 받고

그러나 코치는 부모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선불리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 솔로몬 형제는 선수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해도 되는지 물었고, 부모들은 허락했다. 파펠로는 그때 일을 이렇게



축구팀 선수인 시야부레라 마나카냐카, 파펠로 세시니, 엠마누엘 페베, 로렌스 트세츠는 솔로몬 투매인(중앙) 코치가 보인 모범 덕분에 교회에 들어왔다.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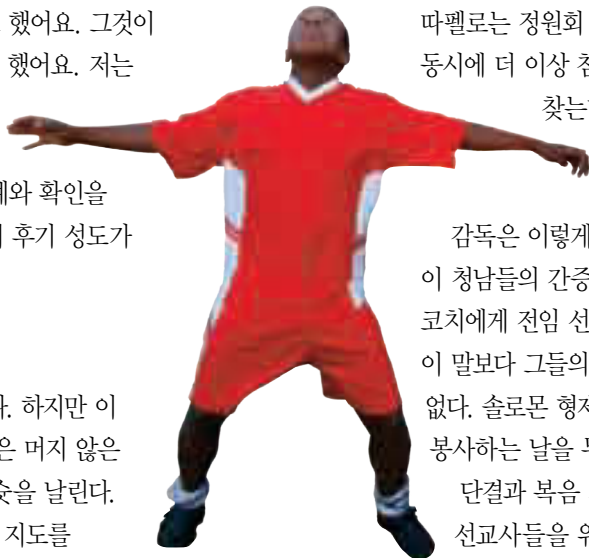
회상한다. “우리는 3주 동안 계속 교회에 참석했어요. 계속 더 많이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코치는 다시 부모들에게 허락을 구했다. 이번에는 선수들이 전임 선교사와 공부를 해도 되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부모들은 또 한번 허락했다.

맥도널드는 말한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몰몬경을 한 권씩 주며 읽어보고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그것이 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몰몬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참되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침례와 확인을 받았고, 선수들 중에서 여섯 소년들이 후기 성도가 되었다.

복음 목표

대다수 팀들은 우승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이 여섯 명의 기운찬 허리케인팀 선수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도달할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슛을 날린다. 영적 코치인 본가니 마홀루비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이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이 소년들은 우리 와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아론 신권 소유자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로 구성된 위대한 신권



팀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이 청남들은 모든 일을 함께합니다. 함께 등교하고, 함께 축구를 하며, 함께 세미나리에도 가고, 함께 신권회에서 봉사합니다. 제가 청남 한 명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면 여섯 소년이 모두 함께 옵니다.” 맥도널드는 제사 정원회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정기적으로 공부한다고 한다. 또한 따펠로는 정원회 회원들이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동시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는다고 말한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지금 선교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종종 간증 모임에서 이 청남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청남들은 솔로몬 코치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약속도 했답니다.” 이 말보다 그들의 축구 코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말은 없다. 솔로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이들이 봉사하는 날을 무척 고대합니다.”

단결과 복음 지식, 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비 선교사들을 위한 탄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이들은 이미 선행을 함께하겠다는 훌륭한 소망을 키웠다. 축구팀이 월드컵을 위해 싸우듯 그들은 “우승”을 위해 동료와 코치,와드 회원, 가족, 친구들을 비롯한 팬들에게 모든 것을 건다. 이러한 팀 정신으로 그들은 목표를 성취해낼 것이다. ■

코치의 개종

많은 청년 성인들처럼 축구 코치인 솔로몬 엘리아 투매인도 종교에 의문이 많았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경전, 특히 구약 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선교사 두 명을 보았죠. 저는 선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꼈죠. 선교사들은 저를 교회로 초대했고, 저는 응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 했거든요.

선교사들은 제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진리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알려 주었어요.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이 참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함께 경전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할 때 말이예요.” ■

생존자들을 도운 생존자들

라이언 쿤즈
교회 잡지

20 09년 9월 말, 열대 폭풍 켈사나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그리고 뒤에도 참화는 계속되었고, 8일 후에는 태풍 파르마가 필리핀 북부 지역을 강타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며칠 후에 파르마가 행로를 바꾸어 다시 열대 폭풍으로 상륙해 더 큰 피해를 가했고, 그 뒤에도 재난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폭풍이 입힌 피해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하던 사람들을 비롯한 필리핀 인근 성도들은 파르마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상륙해 큰 피해를 몰고 올 때까지 도움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다.

비축 물품을 기증하고

9월 말, 마닐라 근방 파라나케시티에 열대 폭풍 켈사나가 들이닥쳤다. 폭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 지역의 네 개 와드 감독 중 한 사람은 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 뚜껑에 몸을 맡긴 채 목 깊이까지 차오른 물을 건넜다. 다음날 성찬식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와드의 많은 회원들은 폭풍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면서도 잠옷이나 반바지 차림에 옷만 걸치고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식량과 의복을 가지고 집회소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근 두 시간 만에 와드의 모든 가족을 방문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었다.

그 후, 많은 파라나케 지역 회원들은 겨우 이틀 밤을 보낸 후 마을 잔해 사이를 헤쳐 나와 집회소에 모였다. 이들은 옷을 스물 여섯 개 포대에 나눠 담았다. 이들은 옷을 분류하고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기부했다.

프란코 어드빈큐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와드의 많은 가족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의



사진 촬영: 내이스트 레아스턴

*태풍이 일으킨
홍수로 필리핀
팡가시난 지역
차량들이
거꾸러지거나
반쯤 묻혀 있다.
교회 회원들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개입치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

밤이었어요.”

궁핍하게 생활하는 한 자매는 어드빈큐라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가족이 언제 기부를 하면 좋겠는지 물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훌륭한 자매님이 봉사할 기회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영감을 받았죠.”

끊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켓 사나가 마닐라 중심부를 강타하자, 필리핀 알라미노스 지방부 회장인 폴페리오 바루트 이세 회장은 지방부 회원들에게 남부 지역 이웃들을 돕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알라미노스 지방부 회원들도 4개월 전인 2009년 5월에 이 지역을 강타한 태풍 에몽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때는 복구 작업에 한창 힘쓸 때였다. 태풍 에몽은 필리핀 서부 도시에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준 태풍이었다. 어업이나 농업으로 생계를 잇는 수많은 회원들은 잇따른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바루트

회장은 부탁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원들은 의복 스물한 자루와 식량 한 포대, 그리고 필리핀 돈 1,500달러를 가지고 집회소로 왔다.

1주일 후에 파르마가 북부 지역을 강타했을 때 알라미노스 지방부 회원들은 다시금 의복과 식량과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재해 지역을 도왔다. 그들 중 몇몇은 시간을 내어 물자들을 직접 배부하겠다고 자원했다.

바루트 회장은 이렇게 간증한다. “우리는 그저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우리의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간증도 강화되었죠. 또한 구주를 더욱 사랑하고 속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이기심과 낙천주의

영 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켄달 에이레스 장로는 물품 배부를 감독하고 조직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에이레스 장로는 구호 노력에서 증명된 필리핀 성도들의 단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역경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우면서 큰 위안을 얻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말씀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필요한 인원과 물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자와 도움의 손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집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필리핀 지역 칠십인인 벤슨 미살루차 장로는 “필리핀인들은 대체로 회복력이 매우 강합니다.”라고 말한다. 반쯤 차 있는, 또는 반쯤 비어 있는 잔을 보기보다 “우리는 잔을 보며 ‘참 멋진 잔이야. 비록 빈 잔이긴 하지만 말이야.’ 하고 말합니다.” ■

선교사들, 가족 역사 지원에 나서

지 난 해, 교회가 새로운 FamilySearch 프로그램을 출시한 이후에 많은 회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했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거나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기본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는 FamilySearch 전세계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해 왔다.

FamilySearch 지원 프로그램은 2005년, 가족 역사 사업을 돕는 자원 봉사자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1,200명에 가까운 자원 봉사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34개국에 있는 봉사 선교사들은 가족 역사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여러 언어로, 다양한 시간대에 도움을 준다.

2008년 8월부터 필리핀에서 봉사 선교사로 봉사해온 세실리아 디마라루안 자매는 가족 역사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회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다. 필리핀에서 가장 먼저 봉사 선교사로 훈련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디마라루안 자매는 세부어, 영어, 타갈로그어를 구사한다. 디마라루안 자매는 인도, 말레이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회원과 비회원들이 가족 역사의 기본

원리들을 배우도록 돕는다.

봉사 선교사들은 보통 30개월 동안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다. 모든 봉사 선교사들은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가족 역사 센터에서 봉사하며, 그곳에서 프로그램 훈련과 그날그날의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에 응답한다. 이 봉사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을 제외한 주 7일, 하루 24시간 응답할 수 있다.

미국犹타 주 플레전트 그로브에 사는 코니 체니 자매는 말한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영어 사용자들이 가족 역사를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요.” 체니 자매는 현재 전세계 지원에서 두 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봉사 선교사들과 연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서 contact.familysearch.org를 방문하거나 koreansupport@familysearch.org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FamilySearch 웹사이트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봉사 선교사들과 연락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가족 역사 선교사들에게 연락하거나 와드 또는 지부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

문의하거나 지역의 가족 역사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사: 로렌 알렌, 교회 잡지 ■

봉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가 족 역사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contact.familysearch.org에 방문하거나 koreansupport@familysearch.org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또는 지역 신권 지도자에게

문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선교사들은 개인용 컴퓨터와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 역사 사업을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

인터넷으로 읽는 한국어 경전과 중국어 경전

교 회는 후기 성도 온라인판 경전 두 가지를 새로 출시했다. 한국어판은 2009년 10월에, 중국어판(번자체)은 12월에 출시됐다. 한국어판은 scriptures.lds.org/ko에서,

중국어판은 scriptures.lds.org/ch에서 볼 수 있다.

한국어 및 중국어 경전 사이트에는 3대 경전(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본문과 여러 유용한 학습 보조 자료, 가나다

순으로 복음 주제를 설명해 놓은 경전 안내서가 들어 있다. 일본어, 세부어, 타갈로그어 온라인판 경전은 2010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

성전 소식

새로 발표된 유타 지역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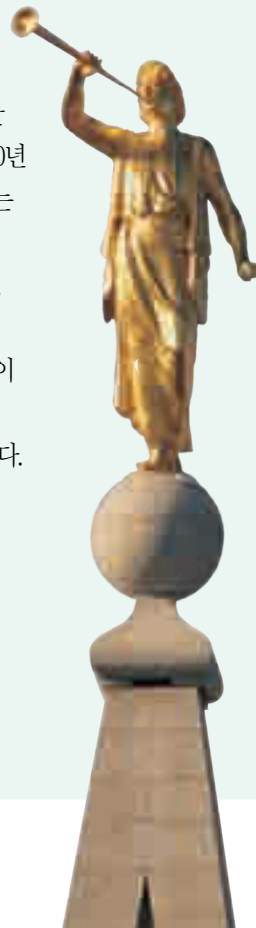
지난 1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미국 유타 주 페이슨에 새로운 성전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슨 성전은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회원들의 수요를 수용하고 교회에서 가장 바쁘게 운영되는 성전 중 하나인 유타 프로보 성전 이용률을 완화시킬 것이다. 페이슨 성전은 유타에서 열다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성전이 건립되면 운영 중이거나 계획 및 건축 중인 성전 수는 152개가 된다.

애리조나에 헌납된 성전

애리조나 힐라 밸리 성전 일반 공개가 2010년 4월 23일부터 2010년 5월 15일까지 열렸다. 문화 행사는 2010년 5월 22일에 개최되었고, 2010년 5월 23일에 헌납되었으며, 헌납식 모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열렸다. 2008년 4월에 건축 계획이 발표된 이 성전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다.

헌납식 날을 기다리는 세부 성전

필리핀 세부시티 성전이 2010년 5월 21일부터 2010년 6월 5일까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 행사는 6월 12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헌납식은 6월 13일에 세 차례에 걸쳐 열리고 필리핀 전역에서 방송될 계획이다. 성전은 헌납식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006년 4월 18일에 건축 계획이 발표된 이 성전은 필리핀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며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전 중 133번째가 될 것이다. ■



애독자 편지

멋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리아호나가 마음에 듭니다. 기사가 연령별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 좋고, 특히 청소년란에서 힘을 얻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사도 좋고, 특히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란이 생겨서 좋습니다. 정말 멋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롤랜드 티, 17세, 필리핀 팡가시안

영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 바뀐 리아호나를 읽으며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저는 청녀 회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성이 새로워진 리아호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리아호나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저희 가정과 청녀들, 그리고 전 세계 회원들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새닌 팔마 산후예자, 칠레

으뜸 되는 것

수년 전, 저는 구독하던 모든 교회 잡지를 리아호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잡지 중에 으뜸이 되는 잡지를 갖게 되었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기사가 질서 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리아호나를 보고서야 배치 구조에 대한 근심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내용도 더 심도 깊고 알칩니다. 이제 리아호나는 제가 복음을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잡을 것입니다.

래리 디 컴프, 미국 서부 버지니아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반석 위에 세워진”, 12쪽: 이 기사를 함께 읽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계시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한다. 연차 대회에서 연속적인 계시에 관한 예들을 찾아본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22쪽: 이 기사를 미리 읽고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 이 기사를 두 번에 걸쳐 가정의 밤 공과에 사용할 수 있다.

“인생의 사명은 지금부터”, 42쪽: 가족들에게 교차로를 정의해 보라고 한다. 기사에 나오는 “매일의 사명” 부분을 읽는다. 그런 다음 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0쪽: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읽은 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 그 순간에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강조한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미리 결심을 하는 것은 어떻게 더 옳은 일을 하기 쉽게 만드는가?

.....

배를 지어

선지자 니파이의 경험을 공부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특히 배를 지으면서 보인 인내심과 자제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데에는



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

1997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과테말라에 방문하셨을 때 가정의 밤을 하라는 그분의 권고가 특히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선지자의 말씀에 감화되어 나와 아내와 네 자녀는 함께 “가정의 밤이라는 배를 짓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데에는 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 해 동안 수백 차례 가정의 밤을 한 끝에, 가정의 밤이라는 우리의 배는 가족과 함께 성장했다. 우리는 정말 힝클리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경험을 했다. 인내심 있게 정기적으로 해 온 이 작은 모임들은 아주 근사한 일을 만들어 냈다. 자녀는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도 더 커졌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사소하고 선한 일에 감사하는 정신이 우리 마음에 싹텄다.(고든 비 힝클리,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1993년 7월호, 52쪽 참조)

로니 사울 가르시아 멘테즈, 과테말라 ■

뻘히 보이는 역경

펠리페 우비나

끝벌과 함께 버스에 탄 경험에서 나는 시련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지혜를 배웠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넓은 누군가를 신뢰해야 한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탔고 창가 쪽 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궁지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작은 벌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벌은 이중 유리창 틈새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투명한 감옥에 갇혀서 눈앞에 자유가 보이는데도 탈출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듯한 벌은 세차게 날개를 쳤지만 절망스럽게도 유리에 몸이 부딪칠 뿐이었다.

나는 누군가가, 또는 어떤 것이 다치는 모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얼마간은 지켜보았지만 곧 벌을 곤경에서 구출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도와주려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도 못하는 벌은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은 끊임없이 몸을 창문에 내던지지만 했다. 결국 나는 약간 화가 났다.

그러나 그때, 얼마나 자주 사람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종종 곤경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것도 아주 중대한 실수를 말이다. 그 벌처럼 우리도 역경으로 된 감옥에 갇혔다고 느낄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시련에서 빠져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그분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삽화: 조지 볼크

때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야가 더 넓은 이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도전에 맞서려고 한다.

사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잘 안다. 우리에게는 경전이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성신과 함께할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은 기꺼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고생을 많이 한 그 작고 불쌍한 벌은 내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가까스로 궁지에서 빠져 나왔다.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분들을 신뢰한다면 고통은 덜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와 중풍병자, 제이 커크 리차즈

구주를 보기 위해 모여든 가버나움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너무나 혼잡했습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의심을 품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마가복음 2:5, 9~12)



인터넷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사물을
있는 그대로”, 22쪽 참조)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복음을
공부하고, 찬송가를 듣고, 자립에 대해
배우며, 가족 역사를 조사할 수 있다.
18쪽에 나오는 “건설적인 인터넷 사용”을
참조한다.

